



[여의도의 변신]
현대가 만든
미래형 백화점
힐링·쇼핑 두तो끼
04



Economy

코스피 2994.98 (-75.11)	코스닥 906.31 (-30.29)
금리 (국고채 3년) 1.006 (-0.014)	환율 (USD-달러) 1112.20 (+1.60) (24일)

광명 시흥에 '3기 신도시'... 7만 가구 공급

윤곽 드러난 2·4 공급대책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 3곳 확정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10만 가구

정부는 24일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이곳에서 10만1000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택지 규모가 큰 광명 시흥은 3기신도시 6번째 지역으로 추가해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확기적확대방안' (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전국에 26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15~20곳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우선 광명 시흥 (1271만㎡) 7만 가구, 부산 대저(243만㎡) 1만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 1만3000가구 등 총 3곳(10만1000가구)의 입지를 1차로 발표했다. 특히 광명 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6번째 지역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로 추가해 기존 5개 지역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광명 시흥 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광명 시흥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를 포함해 역대 6번째 규모다.

정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1000가구 외 나머지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4공급대책 때 발표한 신

규 도심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문을 연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5월 중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 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백신 첫 출하가 시작된 24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백신을 실은 차량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출발하고 있다. /뉴스1

AZ 백신 첫 출하... 닷새간 78만명분 수송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접종 화이자 백신도 내일 국내 도착

국내에서 오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공급이 시작됐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AZ 백신은 이날 오전 10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 백신센터에서 출발해 오후 12시30분경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이날 옮겨진 백신은 약 15만명분의 AZ 백신 초도물량이 같은 장소에서 출하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했던 75만명분보다 3만명분이 늘어난 규모다.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은 전용 컨테

이너에 담겨 5톤 냉장운송트럭에 적재됐고, 군사 경찰과 경찰의 합동 호송 아래 운송됐다. 판교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는 운송 차량의 위치, 온도 유지 여부, 배송 경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지난 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유통관리 체계 구축·운영' 과제에 단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백신 운송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왔다.

이날 출하된 백신은 오는 25일 통합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배송이 진행되고, 백신 예방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작된다.

AZ 백신은 백신 접종에 동의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 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8만9271명에 투여된다. 요양병원 등에서 배송 5일 내 자체 접종을 시작한다. 시설에선 보건소 방문팀이나 위탁 의료기관 의료진이 사전 교육 이수 이후 백신을 접종한다. 1차와 2차 접종은 약 2개월(8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오는 26일 낮 12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의 운송 과정은 모두 화이자 직접 담당한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결제정보 패턴 분석 新사업 '끝없는 기회'

데이터가 돈이다

1 거센페이열풍

직장인 A씨는 출근길 버스단말기에 OO페이 모바일 교통카드를 찍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A씨는 OO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저녁시간에 단체로 결제된 금액은 OO페이 1/N 정산시스템을 이용해 송금한다. 퇴근하는 길, A씨는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운동복과 운동화를 OO페이를 이용해 결제했다.

OO페이 하나면 의식주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다. 현재 국내 출시된 간편결제·송금서비스는 50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내놓은 서비스 26종 외에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서비스가 11종, 카드사가 내놓은 서비스는 8종이다.

소비자 결제내역 데이터 누적 AI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 활용
기업 간 광고 노출로 부가 수익
실물카드 제작 등 자재값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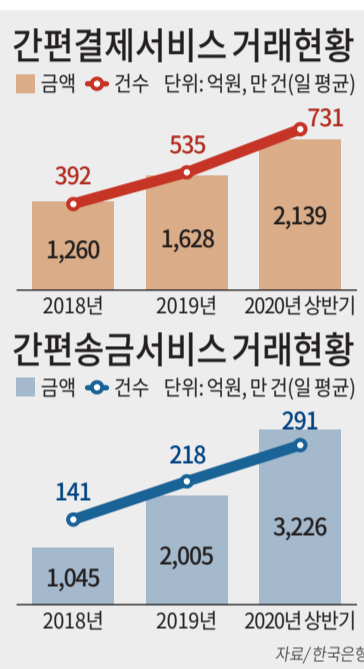
◆간편결제·송금서비스 이용 급증
간편결제·송금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증가 추세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같은 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 시 비밀번호 입력과 단말기 접촉 등을 거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송금하는 서비스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간편결제서비스는 일 평균 731만건으로 2018년(392만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간편송금서비스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291만건으로 2018년(141만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일 평균 거래 금액도 2020년 상반기 3226억원으로 지난 2018년(1045억원) 대비 3배 급증했다.

◆데이터로 맞춤형 마케팅



소비자가 결제한 내역은 간편결제 송금서비스 업체에게 양질의 데이터로 쌓인다. 성별, 연령대, 주요 구매시간, 자주 보는 콘텐츠 등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가 누적되면,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출하는 패턴을 분석해 금융리포트 등을 제공한다. 또 소비자의 지출패턴이나 자산정도에 맞는 투자상품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이용만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진 않지만 소비자가 다른 투자상품 가입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간편결제 송금서비스의 경우 '락인(Lock-in)효과'가 데이터 통한 신규사업 발굴도 촉진시킬 수 있다. 락인효과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보다 더 뛰어난 서비스가 등장해도, 이미 투자된 비용과 습관 등으로 수요이전이 촉진되지 않는 현상이다.

예컨대 네이버페이 결제가 익숙한 소비자는 쇼핑 플랫폼에서 결제 시 네이버페이가 가능한 쇼핑몰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이용해 네이버는 쇼핑몰에 네이버페이 아이콘 광고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를 통해 불필요한 금액도 줄일 수 있다. 삼성페이, 현대페이 등 카드사 페이가 확대될 수록 카드제작 및 분실카드 자재 값이 절감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굴뚝오염 자동측정센서 설치 의무화... '조작 가능성' 논란

환경부, 내년까지 538곳 의무설치
“TMS 데이터 조작 대책 반영안돼
대책은 관리·처벌강화 내용일 뿐
제조사서 상수값 의무 오픈해야”
환경부 “2014년 이후 조작 없어
2회 적발시 사업장 폐쇄 등 처벌”

제철소 등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정부 관제센터로 보내 24시간 감시하는 장비가 의무 설치되지만, 배출 농도 조작이 여전히 가능하고 장비 고장 시 개선기간도 너무 길어 이 기간 중 오염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전국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1,2,3종

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고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은 1,2종 굴뚝은 올해 7월까지, 3종은 내년 연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TMS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이를 어기면 최대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총량관리대상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이다.

TMS는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자동 측정해 그 결과를 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온라인 전송해 사업장의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기존 632개 사업장 1745개 굴뚝에 설치됐고, 의무 설치가 완료되는 2022년 연말까지 전국 538개 사업장의 2292개 굴뚝이 설치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기업들의 비용은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치를

여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 환경부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9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TMS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후 나온 환경부 대책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일 뿐. 기술적으로 배출농도 조작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환경정책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한 바 있어 한 장관의 이에 대한 해명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배출량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TMS 측정기 테스트 방식을 스패ن(Span)값으로 하는데, 이를 실제 배출구 농도를 반영한 중간값으로 테스트하면 근본적으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TMS 모니터링 시 환경부가 인허가 해준 오염물질 농도의 최하인 제로값(0ppm)과 동작범위 최대치인 스패 값을 측정하는데, 사업장마다 배출농도가 다르고 상수값을 바꿔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 하지만 TMS 원격 모니터링 시 표준 가스를 해당 사업장의 평상시 배출농도 값으로 원격 테스트하면 조작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TMS 장비의 변경되는 모든 상수값의 변경을 관제센터에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TMS 제조사들이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상수값을 오픈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TMS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TMS 설비 고장시 개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주고 있다.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할 경우 이 기간 중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을 초과해 배출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배출량 규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 환경부도 이를 인지해 지난 2018년 공청회 등을 열고 장비 고장시 개선기간을 3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침을 수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TMS 배출농도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공단 직원을 대동하고 들어간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2014년 이후 실제 조작 사례는 없다”며 “내부검토 결과 비밀번호 유출에 대비해 2019년 국정감사 직후 관제센터 점검시 들어간 사람도 실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출농도 조작이 적발되면 9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시엔 사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내 일자리는 어디에...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종사자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라임펀드 투자손실 최대 78% 배상 권고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배상비율 알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65~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조정이다.

일단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기본 배상비율을 50~55%로 잡았고, 여기에 투자자별로 사유에 따라 가감해 정해졌다. 최고 배상비율은 78%로 원금 보장형 상품을 원했던 80대 초고령자에게는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일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정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고 설명

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번에 분조위에 부의된 것은 모두 3건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 가산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78% 배상,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는 68% 배상이 결정됐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 설명하지 않은 사례는 65% 배상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

청년구직자 10명 중 6명 '사실상 구직포기'

대한상의, 일자리 상황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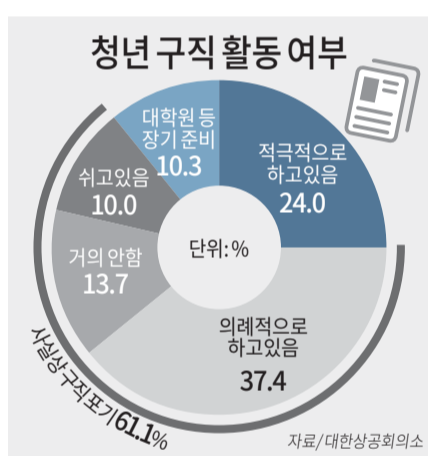
‘적극적 구직활동한다’ 24% 불과
의례적 37%, 안하거나 싨다 24%
57% “올 취업 어려울 것” 답변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미래 전망도 부정적이다.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취업난도 해결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청년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들은 평균 9.3개월 구직 활동을 하면서 최근 1년간 8.4번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면접도 2회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24%에 불과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도 37.4%에 머물렀다. ‘거의 안하거나 그냥 쉬고 있다’는 23.7%나 됐다.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것.

희망도 없었다. ‘올해 내 취업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7.1%가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41.3%였다.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자신감마저 위축되어 자칫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단 청년들은 고용시장 문제를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다. 64.1%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라고 답했고, 자동화나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답변은 25.8%였다.

다만 청년 취업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포괄적이라고 봤다. 가장 많은 47.4%가 ‘기업의 경력직 선호’를 꼽았

고, 26.1%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청년층 기회감소’, 13.4%가 ‘대학 졸업자 과다’를 지적했다.

고용시장 회복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금년 중이라는 응답은 3.6%, 2년 이상이 73.6%나 됐다. 이중 2~3년이 42.3%로 많았지만,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31.3%였다. 고용시장 침체 장기화 이유는 ‘경기 불확실성 지속 우려’가 49.2%로 압도적, ‘고용시장 경직으로 기업들의 채용 기피’가 21%,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가 16.1%였다.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부정적이었다. 77.8%가 신청도 해보지 않았고, 참여한 경우는 6.4%였다. 15.8%가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이유는 ‘경력이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다. 30.6%가 이렇게 말했다. ‘정보를 찾기 어려워’라는 대답도 27.5%, ‘취업에 집중하려고’라는 청년은 26.9%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경기 침체 상황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우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35.9%가 ‘경기 활성화’, 18.2%가 ‘노동시장 개혁’, 11.9%가 ‘기업투자 촉진’을 말했다.

/김재용 기자 iuk@

“감염의심·고열 땀 집중 연기해야”

>> 1면 ‘AZ백신 첫 출하...’서 계속

이 백신 약 5만8000명분은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중 접종에 동의한 5만49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날 백신 예방접종 설명회에서 AZ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라고 판단해 접종이 가능하고 권고하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건 맞지만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유효성과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전 의사와의 철저한 예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이세경 기자 seelie@

‘여의도 4배’ 광명 시흥, 신도시 격상... 서울 수요 흡수할까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하고 광명 시흥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추가했다.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값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음 정권이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추가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도심 개발사업 일부 후보지를 다음 달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고를 실시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 확대 기대분양까지 4년... 단기 안정 어려워 개발 호재에 투기세력 단속 필요 차기 정권 공급과잉 문제 속제로

국토부는 24일 광명 시흥(1271만㎡) 7만 가구, 부산 대저(243만㎡) 1만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 1만3000가구 등 총 3곳(10만1000가구의 입지를 1차로 발표하며 광명 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6번째 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 지구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에 이어 광명시흥이 추가돼 총 6곳으로 늘어났다.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가 24일 경기 광명시 가학산에서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도시 중 최대 규모며, 1·2기 신도시를 포함해 역대 6번째 규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진행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공고되며, 오는 3월2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번에 1차로 확정된 3곳 10만1000가구 외 나머지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 단기적 집값 안정은 불가능

지자체와의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커져 주변 청약대기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으로 이끄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며 “주변 유효수요의 분양대기 수요 전환이나 집값 상승세를 다소 둔화시키는 것은 기대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해당 택지개발이 호재와 재료로 인식돼 단기적으로 주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진척 사항이 덜 가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시장 안정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택지지구는 기본계획이라도 잡힌 곳을 발표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예상되는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만 김민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상승으로 과수요가 발생해 주택이 부족했던 것이지 실질적인 공급부족은 아니다”라며 “인구변화와 향후 주택시장 안정 상황까지 감안해 철저하고 냉정하게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집값 하락과 공급과잉 속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도심사업 후속조치 신속 이행 정부는 또 2·4공급대책 때 발표한 신

규 도심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17일 문을 연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또 5월 중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 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시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선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광명 시흥 2023년부터 사전청약 시작”

국토부 일문일답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택지 개발 방안과 관련해 오는 2023년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대책으로 경전철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차관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철도의 방식은 연장 수요 등을 감안하면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도림역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추가로 발표될 신규 공공택지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2·4대책에서 발표한 총 26만3000호 중 1만3000호는 행복도시 내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25만호 가운데 수도권이 18만호, 비수도권이 7만호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 7만호가 발표됐으니 11만호 정도 물량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

이고, 비수도권은 3만1000호가 발표됐으니 3만9000호의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철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오늘 발표한 대로 1, 2, 7호선과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 제2경인선 등을 다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할 것이다. 철도 방식은 연장 수요를 감안해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작점과 종점은 세부적인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할 것이다. 다만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구를 통과하는 역사 등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때 최종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택지 주택 입주시기는.

“오늘 지구지정계획을 발표했고, 분양은 2025년부터 들어갈 것이다. 이에 앞서 사전청약을 2023년부터 들어간다. 4월 2차 발표하는 공공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한다는 보면 된다.”

/정연우 기자

이런 청량함은 처음이야

Chilsung Cider x BTS

현대가 만든 미래형 백화점... 자연공원서 힐링·쇼핑 '만끽'

'더현대 서울' 여의도 오픈

매장면적 줄이고 휴식 공간 확대
유리로 천장 제작, 보이드 기법 도입
"공원 위해 연 2000억 매출 포기"

커피를 마시다 고개를 들자 넓게 트인 파란 하늘이 보인다. 수백그루의 나무와 넝쿨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하다 보면, 폭포 소리와 새소리가 들린다.

백화점 안에 공원이 통째로 들어왔다. 자연 채광 아래 다양한 식물들로 꾸며진 실내 조경, 그리고 1층 메인홀에 위치한 인공 폭포까지 '더현대 서울'은 그야말로 '자연을 담은 미래 백화점'이다.

26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24일 방문한 서울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픈 전부터 '서울지역 최대 규모' '파격'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만큼 소비자들의 기대도 컸을 터. 베일을 벗은 '더현대 서울'은 기대 그 이상이었다.

층마다 틈틈이 채워진 의자에는 오직 '휴식'을 취하기 위해 더현대 서울을 방문한 소비자들로 가득 찼다. 코로나19로 오픈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로 입점한 매장들을 체험하기 위한 소비자가 가득하다.

현대백화점은 ▲힐링 공간 확대를 통한 '리테일 테라피' 경험 제공 ▲'자연'을 콘셉트로 한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정식 개점을 앞두고 사전개점한 '더현대 서울' '더현대 서울'을 찾은 시민들이 개점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정식 개점을 앞두고 사전개점한 '더현대 서울' '더현대 서울'을 찾은 시민들이 개점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과 매장 구성 ▲큐레이션 방식으로 매장 배치해 쇼핑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더현대 서울'을 대한민국 서울의 대표 라이프스타일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공원 방벽케 하는 공간 구성

가장 큰 특징은 상품 판매 공간인 '매장 면적'을 줄이는 대신, 고객들이 편히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객 동선을 넓힌 점이다. 이 때문에 마치 갤러리를 둘러보는 것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수를 더 늘릴 수 있었지만, 공원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 1500억~2000억원 어치의 매출을 포기했다. 고객들에게 휴식공간과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더현대 서울'의 오픈 후 1년간 매출목표는 6300억원이다. 그중에서 약

23%에서 30%의 매출을 포기하며 공간을 구성한 것.

'더현대 서울'의 전체 영업 면적(8만 9100㎡) 가운데 매장 면적(4만 5527㎡)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나머지 절반가량의 공간(49%)을 실내 조경이나 고객 휴식 공간 등으로 꾸몄다. 일반적인 현대백화점의 매장 면적 비중은 65%다.

천장은 모두 유리로 제작, 천장부터 1층까지 건물 전체를 오픈시키는 건축 기법(보이드 기법)을 도입해 고객은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1층에는 12m 높이의 인공 폭포가 조성된 '위더풀 가든(740㎡, 224평)'이 시선을 사로잡고, 5층에 들어서면 '더현대 서울'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내 녹색 공원 '사운즈 포레스트(약 3300㎡, 1000평)'가 있다. 천연 잔

디에 30여 그루의 나무와 다양한 꽃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백화점'

더현대는 위드(with)·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안전한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쇼핑 중 접촉 최소화를 위해 복도 폭도 최대 8m까지 구성했다. 식사 매장에는 비말 튀김을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칸막이가 세워졌다. 백화점 내에서 이동시에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됐다. 커피를 마시면서 복도를 이동하자 직원이 다가와 "이곳에서는 이동 중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제지했다.

더현대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무인상점도 운영 중이다. 점원이 없는 해당 매장에서 소비자는 사전에 결제수단과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뒤 물건을 집어 바

로 매장에서 나오면 된다. 5분 뒤 해당 제품은 자동으로 결제된다.

백화점 최초로 문화센터를 시작한 현대백화점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언택트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은 언제든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 내에 촬영시설까지 갖추었다.

코로나로부터 물리적으로도 안전을 기할 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도 예방하고 있다. 코로나로 여행이나 외부 출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 더현대 백화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과 힐링을 가능하게 한 것.

'사운즈포레스트'를 중심으로 5층과 6층은 문화·예술과 여가생활 그리고 식사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컬처 테마파크'로 조성했다. 6층에는 200여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알트원(ALT.1)'과 차세대 문화센터 'CH 1985(Culture House 1985)'이 들어선다. 식음료(F&B) 공간인 '그린돔(영업면적 1382㎡)'은 5층과 6층 두 개 층에 걸쳐 위치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대와 상황이 변하듯 백화점도 변해야 한다. 더현대 백화점보다는 고객의 휴식과 경험을 우선시한다"면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패턴을 고려해 쇼핑뿐 아니라 재미와 휴식의 경험을 주기 위해 그동안의 백화점과는 다른 콘셉트로 더현대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신원선·조효정 기자tree6834@metroseoul.co.kr

재건축 봄바람 부는 여의도... 14개 단지 신고가 행진

여의도 일대 아파트 안전진단 속도
분리재건축 행정소송은 과제로

금융을 잘하는 신한금융 그룹의 신한카드

교육비+입사축하금 350만(경력자 우대)
고객센터PDS(오토콜) 공채 2명

"지능화 발전"으로 통화성공률 효과 UP

▶지원자격:
- 신입 / 경력
- 경력자우대(전직장소득보장)

▶담당업무:
상담 동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업무

▶지원접수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11
디프라이빙 23층 신한 고객센터 2실

※ 근무시간: 10시~5시(주5일근무) ※

FAQ

1. 상담업무를 해보지 않은데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한번은 처음입니다. 회사에 교육담당자와 매니저가 단계적으로 교육해드리고 소독중기를 최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직위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비 350만(경력자 우대)
- 고등학생, 대학생 2차내 학자금(연4회)
- 1~18개월차까지 정액급여지원
- 매년 직급금 지급제도 운영

3.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 1년차평균: 월200~250만원대
- 2년차평균: 월300~400만원대
- 상위명칭: 업계최고 고소득발상
* 수입은 내가 알고싶은 만큼 읽는 능력과 출중하다

4. 다른 회사도 많은데 꼭 신한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신한카드 마케팅 동고고대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통해 고객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판매하고 가치를 사는 일을 하며 성사율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인크루팅/육성 전문실장 : 임연정 (문자환영)
010-3043-35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속도를 내면서 들쭉날쭉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백화점 '더현대 서울' 오픈 등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24일 도시정비법제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 일대에서는 16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삼부아파트(866가구), 시범아파트(1578가구), 미성아파트(577가구), 광장아파트(744가구), 은하아파트(360가구) 등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목화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6일 최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으며 재건축을 확정했다. 예비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에서 A~E등급으로 나뉘는데, E등급(30점 이하)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현재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바로 조합설립 추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성아파트는 다음달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해결할 과제는 있다. 광장아파트의 경우 분리재건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미성아파트 전경. 이 아파트는 최근 예비안전진단 통과로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정연우 기자



미성아파트의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 /정연우 기자

사업에서 제외된 1·2동 주민들과 영등포구청 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구청 측

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자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타며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광장아파트(전용면적 102㎡)는 지난

해 12월 19억1000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형의 경우 19억2000만원~20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미성아파트(전용면적 101㎡)는 19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이 면적형은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됐던 지난해 12월 19억4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범아파트(전용면적 79㎡) 역시 지난달 1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울 시장 후보자들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과 함께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하며 최근 가격이 상승세다"라며 "재건축 외에도 철도망 신설과 상업시설 입점 등 각종 호재가 겹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GTX-B 노선 등 철도 구축 계획과 자연친화형 미래 백화점으로 불리는 '더현대 서울'의 오픈 소식은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여의도는 기존 지하철 5호선·9호선 외에도 경기 안산·시흥·화성을 연결하는 신안산선과 인천 송도와 경기 마석을 잇는 GTX-B노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예정됐으며 현대백화점이 선보이는 '더현대 서울'이 오는 26일 오픈을 앞두고 있어 여의도 일대 아파트 호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우 기자 yw964@

#은행별 전담 조직 #대출 평가 변화... ESG 존재감 커진다

장기적 기업가치 중요 요소 부각
은행연합회, 조직개편안 확정
기업 대출 투자시 평가요소에 ES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은행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도 ESG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ESG가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는 만큼 ESG요소를 반영한 대출·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ESG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연합회 차원에서 은행권 ESG 경영을 지원하고 관련 협의사항을 논의해 ESG경영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은행, ESG 조직 신설·확대

은행권은 ESG경영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ESG 경영을 위해 ESG 관련 조직을 신설·확



대하고 있다.

KB금융은 사내·외 이사 9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SG위원회는 그룹 ESG전략과 정책 수립, ESG추진현황 등을 관리·감독한다. 특히 KB금융은 지주 및 계열사 임원 평가 시 친환경 캠페인 횟수, 탄소배출 및 전기사용량 감소 목표달성 여부, ESG 관련 기업 투자 및 공동사업 등의 ESG 성과를 반영한다.

신한금융은 이달 그룹 내 ESG경영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계열사 CEO를 회원으로 하는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사회책임경영 위원회를 ESG전략위원회로, 그룹·지속가능 경영 CSO협의회를 그룹 ESG CSSO협의회로, 그룹 지속가능경영 실

무협의회를 그룹 ESG 실무협의회로 변경했다.

하나금융은 계열사 CEO를 회원으로 '사회가치경영위원회'를 구성해 ESG 전략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금융도 ESG전담부서인 ESG경영부를 신설한데 이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ESG경영위원회는 ESG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ESG 관련 각종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등 ESG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금융은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이 주관하는 ESG전략협의회의와 ESG 실무회의도 신설 예정이다.

◆대출 투자시 ESG 반영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ESG 경영이 기업들의 대출·투자 평가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임옥빈 한국국제회계학회 연구원은 "비재무적 정보인 ESG경영평가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후문제나 기업총수의 불법행위 등 '오너리스크'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기업 대출 투자 시 평가요소에 ESG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KB금융은 중소기업 대출 심사

에 ESG 등 비재무 정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대출과 투자 승인 절차에도 ESG적 요인을 평가하고 있다"며 "자체 여신기본강령이나 모범규준에 따라 사회공익에 반하는 불건전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투자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ESG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ESG평가로 스타트업 지원을 늘리고, 대출투자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나금융도 여신업무내부 기준에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업체에는 간접적으로 여신을 제한해 온실가스 저감 등의 친환경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환경 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ESG에 충실한 기업을 얼마나 많이 발굴할 수 있느냐 관건인 만큼 ESG 평가요소를 반영한 대출 투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수고객 플랫폼 '신한플러스' 1500만명 돌파

멤버십 플랫폼·금융거래 앱 결합
금융거래점수 단순화... 편의성 ↑
수수료 면제·무료 쿠폰 등 큰 호응

신한금융그룹은 24일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혜택을 담은 통합 우수고객 서비스 플랫폼인 '신한플러스'의 멤버십 회원수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신한플러스 멤버십은 작년 4월 신한금융의 우수고객 제도인 '그룹 탑스 클럽(Tops Club)'을 전면 개편해 금융권 최초로 멤버십과 금융거래 앱을 결합한 형태로 출시한 그룹 통합 우수고객 서비스다.

신한플러스 멤버십은 고객 관점에서

금융거래 점수를 단순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수수료 면제와 무료 쿠폰 및 마이신한포인트 제공 등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제휴처와 협업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금융/비금융 활용 구독경제 플랫폼 구축 ▲그룹사 협업을 통한 상품 라인업 확대 등 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또 신한금융은 신한플러스 멤버십 회원 1500만명 달성을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엔 15달! 신한플러스 15.15.15' 이벤트는 매일 참여할 수 있

으며, 100%의 당첨 확률로 마이신한포인트를 5포인트부터 최대 1500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플러스가 금융 서비스를 넘어 건강, 편의, 구매 등 다양한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플러스는 신한은행 SOL(솔), 신한카드페이판(PayFAN), 신한금융투자 신한 알파, 신한생명 스마트창구 등 신한금융그룹 주요 앱 내에 앱인앱 형태로 탑재돼 추가적인 앱 설치 없이 100여가지가 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는행은 24일 서울 중구 우리는행 본점 광통관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광석 우리는행장(오른쪽)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와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행

우리銀,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융복합 상품 개발 협력

우리는행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광석 우리는행장과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융복합 상품 개발 및 플랫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사는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는행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충분한 대출 상환능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용상품 출시로 1금융권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온라인 사업자가 필요한 사업자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뉴스통장(한도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영석 기자 ysl@

'NH마이데이터페스타 제2탄' 이벤트

NH농협銀 마이목표 서비스 출시 기념

NH농협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콘텐츠 'NH자산+'에서 '마이(MY) 목표', '마이 보고서' 서비스를 출시한 것을 기념해 다음달 26일까지 'NH마이데이터페스타 제2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자산+ 가입하고! 마이 목표 달성하고!'가 테마다. 총 2만68명을 추첨해 300만원 예금 증서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3종 이벤트로 진행된다.

첫번째 이벤트는 'NH자산+'에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2만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두번째 이벤트는 'NH자산+' 가입 고객 중 '마이 목표'에 이루고 싶은 금융 목표를 설정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총 18명을 추첨해 ▲1등 300만원 예금증서(1명) ▲2등 아이패드프로(2명) ▲3등 다이스 에어랩(5명) ▲4등 삼성 인덕션(10명) 등을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이전 가입 고객도 참여가 가능하다.

세번째 이벤트는 농협은행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고객 중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하고, 2021년 신년 목표를 댓글로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5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디지털 세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댓글에 친구를 소환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 다.

/안상미 기자

Sh수협은행

신규 기업회원에 증정품 쏜다

Sh수협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고객들을 응원하기 위해 '신규 가입 기업회원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1월 1일 이후 수협 신용카드에 신규 가입한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이후 3개월 매출액 합산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골프 라운딩권 등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따른 사은품은 법인 회원당 1회 제공되며, 매출 실적 중 지방세, 정부구매, 연구비 매출액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KB국민은행 해외송금 서비스 리뉴얼 기념 행사

총 1000명에 5000 포인트리 지급

KB국민은행은 'KB-이지(Easy) 해외 송금서비스' 리뉴얼을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KB스타뱅킹에서 KB-이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거주자 개인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5000 포인트리를 지급한다.

KB-이지 해외송금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없이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미화 5000불 이하의 금액을 연중 24시간 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서비스다. 기존 모바일 해외송금과 달리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없이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USD, EUR의 경우 미화 2달러, 그 외 통화는 미화 4달러의 중계 은행수수료로 저렴하게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날 수 없는 조종사... 자격유지 난항

90일내 동일기종 이착륙 경험 필요
대한항공만 전 기종 시뮬레이터 보유
정부의 별도 지원 조치도 없어

항공업계가 운수권의 회수 유예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항공기 조종사들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종료할 예정이었던 항공사 대상 운수권(비행할 수 있는 권리) 회수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운수권의 회수를 6개월 또는 1년 유예하는 것이다. 국가 간에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에 회수된다.

하지만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으로 운수권 및 슬롯(항공기 출·도착 시간)의 회수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까지 해당 유예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코로나 여파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이차림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토부는 항공사에 각종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착륙료 10~20%, 정류료 전액을 감면받고 있다. 해당 조치로 국토부는 지상조업사 대상 계류장사용료 전액 감면을 포함해 약 457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



대한항공 항공기.

을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다. 조종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90일 이내 동일 기종 항공기 또는 시뮬레이터로 3회 이착륙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기량심사 통과 및 최근 3개월 이내 항공기 승무 경험도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국제선의 운항 편수가 대폭 줄면서 이 같은 자격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별도 지원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그나마 전 기종의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조종사들의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비운항으로 실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어도 시뮬레이터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시뮬레이터를 총 11대 보유 중이다. 이는 보유 중인 항공기 기종별 1대 이상의 시뮬레이터를 갖춘 규모로 인천 영종도 소재 훈련센터에서 24시간 훈련 가능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운항편 감소에 따라 실제 항공기 운항으로 심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부 사전 승인을 통해 시뮬레이터 훈련으로 이를 대체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달리 시뮬레이터가 없는 항공사들은 일부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A380 기종 항공기의 시뮬레이터는 없는 상황이다. 당초 코로나 이전 아시아나는 방콕 타이항공의 A380 시뮬레이터를 대여해 교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재 해당 기종 운항에 있어 최소 인력만 유지하고, 나머지 인력은 자격 유지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A380 조종사의 자격 유지 관련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고, 국제선 운항이 원활해지면 조종사분들의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 양산

6세대 V낸드 기반, OCP규격 만족
연속 쓰기 속도 3000MB/s

삼성전자가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를 만든다.

삼성전자는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OCP) 규격을 만족하는 SSD PM9A3 E1.S를 양산한다고 24일 밝혔다.

OCP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정립하는 기구다.

새 SSD는 6세대 V낸드 기반 제품으로, OCP의 NVMe CloudSSD 표준을



PM9A3 E1.S

/삼성전자

지원하고 데이터센터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전력 효율, 보안 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

연속쓰기 성능 기준 1와트당 283MB/s로 이전 세대보다 약 50% 낮다. 지난해 출하된 하드디스크를 이 제품으로 대체하면 한여름 서울시의 1달간 전력 사용량(지난해 8월 1412GWh)보다 많은 1년간 1.484GWh를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성능도 개선됐다. 연속 쓰기 속도가 3000MB/s로 약 2배, 임의읽기 속도와 임의쓰기 속도도 40%, 150% 빨라졌다. 데이터암호화 뿐 아니라 안티롤백, 보안 부팅 등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보안성도 높였다. 보안 부팅 기능도 추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

한화큐셀, 63MW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 수주

한양, 다스코와 공동이행 방식 시공

한화큐셀이 전남 고흥호 63MW(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댐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인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단독으로 착공한 데 이어 고흥호 사업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한화큐셀을 주축으로

(주)한양, (주)다스코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한다. 계약금액 1116억원 중 한화큐셀의 지분은 50%다. 공동이행 방식이란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비율을 나눠 함께 시공하는 것이다.

한화큐셀은 나로호 발사지인 고흥군의 상징성을 살려 우주를 향해 도약하는 나로 우주센터를 표현하기 위해 달 형상으로 발전소를 시공할 계획이다. 내년 3분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발전소는 약 9만명이 연간 가정용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 6만 3922명이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

한화큐셀은 수상 태양광 전용 모듈인 큐피크 듀오 포세이돈을 이 발전소에 설치한다. 친환경 자재로 생산된 큐피크 듀오 포세이돈은 썩습 85도, 상대습도 85%의 환경에서 3000시간 이상 노출 검사 등의 KS인증 기준보다 높은 내부 기준을 적용해 고온, 다습한 환경에 특화된 제품이다.

/김수지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코나EV’ 리콜 입장 발표 “원인규명 아직... 연관성 조사”

“소비자 안전 최우선... 리콜 협조
재현 실험선 화재 발생하지 않아”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코나EV(전기차) 리콜(시정조치) 관련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관련 원인 규명 등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다”라며 “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부 및 현대차와 함께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리콜 사유로 언급된 배터리 셀 내부 정렬 불량(음극탭 접합)의 경우 국토부의 발표대로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남경 현대차 전용 생산라인들의 양산 초기 문제로 이미 개선사항은 적용됐다”라며 “현대차

의 BMS 충전전력 오작동의 경우 당사가 제안한 급속충전 로직을 현대차에서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제조, 검사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지난해 10월 화재 원인으로 제시됐던 분리막 손상 관련 합동 조사단의 모사실험 결과 화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 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리콜로 수거된 불량 고전압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결과, 셀 내부 정렬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 화재 재현실험을 진행 중이다.

/김수지 기자

LG전자, 올레드TV 年 200만대 이상 출고

글로벌 시장 비중 역대최대

LG 올레드 TV가 연간 200만대 출고를 넘어섰다.

24일 오피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올레드 TV를 204만 7000여대 출하했다. 첫 200만대 돌파다.

2019년보다는 23.8%나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에만 86만 4000여대를 출하하며 분기 최대치도 경신했다.

LG전자는 올레드 TV 평균 판매단가(ASP)가 2000달러에 가까운 1971.9달러(한화 약 218만 8000원)였다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LCD TV(428달러)의 4.6배에 달한다.

ASP가 200만원 이상인 TV 중 출하량이 200만대를 넘긴 것은 LG 올레드 TV가 처음이다. 프리미엄 TV로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서도 꾸준히 출하량을 늘리면서 건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레드 TV 진영도 동반 성장했다. 지난해 365만 2000여대로 전년 대비



LG올레드 TV.

/LG전자

20% 이상 늘었다. 4분기에는 152만대를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 100만대 시대를 열었다.

글로벌 시장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9%를 돌파했다. 수량 기준으로도 2.2%나 됐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LG올레드 TV는 자발광 소자를 이용해 높은 화질을 내는 제품으로, 프리미엄 화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올레드 TV 제조사도 19개, 올해 올레드 TV 판매도 늘어나면서 20개 이상이 올레드 TV 진영에 합류할 전망이다.

/김재웅 기자

LG전자, 세계 20개 TV업체에 웹OS 공급

소프트웨어 분야로 TV 사업 확장

기 위함이다.

LG전자가 웹OS를 글로벌 TV에 탑재한다. TV 플랫폼 사업에도 새로 진출하게 됐다.

LG전자는 올해부터 전세계 20여개 TV 업체에 웹OS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RCA와 중국 풍가 등이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하드웨어 중심이던 TV 사업을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데이터 분석 업체 알폰소 인수에 이어 플랫폼 사업 진출 등으로 비즈니스를 다변화하

또 LG전자는 이를 통해 TV 사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웹OS 생태계 확대도 수익창출뿐 아니라 콘텐츠 및 서비스 사업 고도화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웹OS의 앞선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다. 그동안 TV 사업에서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는데에는 웹OS 덕분이라고 분석하며, 생태계 확대를 위해 공급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와 방송 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소비의 기술에서 투자의 기술까지
KB 금융플랫폼에서 즐기는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

자산관리도 역시 KB

소비스타일을
분석해 주고

흩어진 자산들을
모아 주고

'로보어드바이저'와 '전문가'가
추천해 주고

프리미엄 정보까지 전문 PB가
관리해 주는



KB 금융플랫폼은 'KB스타뱅킹', 'KB Pay'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간편하고(Simple), 더 빠르고(Speedy), 더 안전한(Secure)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 KB증권 |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 푸르덴셜생명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생명보험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 KB신용정보

KB 금융그룹

BMW 헤리티지 담은 디자인에 역동적 드라이빙 '반전 매력'



BMW '뉴 4 시리즈 쿠페'

수직형 키드니 그릴 새롭게 적용
4시리즈 최초 고성능 M퍼포먼스
낮은 rpm 영역부터 시원한 가속력

“기대했던 것보다 디자인·주행성능 매력적.”

완성차 브랜드마다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디자인을 둘러싸고 호불호가 갈린다. 최근에는 BMW가 새롭게 선보인 뉴 4시리즈는 수직형 키드니 그릴을 적용해 공개와 함께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당 그릴은 BMW의 헤리티지를 담아 디자인됐다. BMW의 전설적인 쿠페 모델들의 헤리티지를 계승한 수직형 키드니 그릴이기 때문이다.

직접 만나본 뉴 4시리즈의 전면은 앞범퍼 하단까지 길게 확장된 그릴과 메



수직형 키드니 그릴을 적용해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BMW 뉴 4시리즈

시 타입 공기흡입구, 날렵한 헤드라이트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측면은 길고 넓은 차체와 짧은 오버행을 통해 역동적 비율을 완성했다. 넓고 뚜렷한 표면과 풀 LED 리어라이트가 조합된 후면은 강력한 이미지가 느껴진다.

차체는 이전 세대보다 한층 커졌다. 길이 4770mm, 폭 1845mm, 휠베이스 2850mm로 이전보다 각각 130mm와 27mm, 41mm 늘어나 실내공간이 한층 여유로워졌다. 높이는 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

지가 1385mm, 뉴 M440i xDrive는 1395mm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실내는 고품질 소재가 어우러져 프리미엄 스포츠 모델에 걸맞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또 스포츠 시트와 M 가죽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계기판과 도어 패널 트림, 높게 자리 잡은 센터콘솔 등이 앞좌석 승객에게 감싸 안는 듯한 환경을 제공한다.

주행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4시리즈 최초로 고성능 M퍼포먼스를 적용한



BMW 뉴 4시리즈의 실내 인테리어는 스포츠 쿠페에 걸맞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뉴 M440i xDrive 쿠페를 타고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은 BMW 드라이빙 센터를 출발해 왕산마리나를 왕복 주행하는 약 50km에서 진행했다. 도심과 고속 주행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

뉴 M440i xDrive 쿠페는 최고출력 387마력, 최대토크 51.0kg·m를 뽐내며 M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으며,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으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5초만에 가속한다.

덕분에 BMW 특유의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으면 힘차고도 부드러운 몸놀림이 상당하다.

또 전반적인 주행성능은 날카로운 역동성과 최상의 핸들링으로 여유로움까지 느껴진다. 낮은 rpm 영역부터 시원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으며 고속주행 시에는 높은 rpm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거침없는 주행을 이어갔다. 특히 와인딩 구간에서는 민첩한 움직임을 보이며 차체의 흔들림은 느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부담없이 '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좁은 공간에서 주차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를 위한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에서는 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 최대 50m 거리까지 차량의 후진 조향을 도와주는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도 매력적이다. 시승한 모델인 M440i xDrive 쿠페는 8190만원이며, 420i M스포츠 패키지는 59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조현식 대표 사임... “경영권 논란 책임”

(한국엔컴퍼니)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신청으로 분쟁
이한상 교수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안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송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조현식 대표(사진)가 24일 최근 불거진 한국타이어(家)의 경영권 분쟁 논란에 책임지고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버지 조양래 한국엔컴퍼니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신청으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한국엔컴퍼니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안하는 주주서한을 공



개하고, 이 교수의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대표는 주주서한에서 “최근까지 우리 회사가 여러 이유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본의든 아니든 창업주 후손이자 회사의 대주주들이 일치단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중 한 명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를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임하고

자 한다”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로써 경영권 분쟁 논란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교수의 이사 선임 안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지난 5일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조 대표가 추천한 이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기업가치의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초빙돼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 조언한 바 있으며, 국내 유수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를 C등급에서 2년 연속 A등급으로 견인하는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방통위, 크리에이터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불리한 내용 계약 등 차단

“MCN 회사들이 처음 구두로 계약을 한 후 나중에 계약서를 보면 정확한 표기가 없거나,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다 계약해지도 비밀비재하구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MCN)와 크리에이터 간 계약 단계에서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계약강요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25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리에이터가 최근 인기 직업으로 부상하고 수도 늘어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크리에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도 빈번해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내용이 담겼다.

/김나인 기자

네이버

화상회의 솔루션 ‘웨일온’ 출시

네이버(가) 웹 브라우저 ‘웨일’ 전용 화상회의 솔루션 ‘웨일온’을 정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베타서비스를 거쳐 정식 출시된 웨일온은 세계 최초로 브라우저에 직접 탑재된 화상회의 솔루션이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웨일의 툴바에서 바로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타 화상회의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유료상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회의 시간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모바일과 PC환경 모두에서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U+, 인천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입주기업 에너지 데이터 실시간 수집
비용 절약·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LG유플러스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발주한 ‘산업단지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을 수주, 시행자로 참여하게 된 결과다.

LG유플러스는 24일 서울 용산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제조업의 근간인 산업 단지의 혁신성장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만드는 내용이다. 정부는 남동·구미·광주·여수 등 7개 거점 산업단지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할 방침

이다.

LG유플러스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에너지플랫폼 구축을 담당한다. 그 첫 단계로 ‘산업단지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CEMS)’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CEMS는 입주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공장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입주 기업은 서버 등 별도의 물리적인 IT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활용해 입주 기업은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비용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입주 기업의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저장·정제·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현대차 벤다이어친 영입... UAM 경쟁력 강화

기체 개발·선행 연구개발

현대자동차그룹이 도심항공모빌리티(UAM)부문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UAM부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체 개발 및 선행 연구개발 업무를 이끌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로 ‘벤다이어친(사진)’을 영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벤다이어친 최고기술책임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항공우주 산업 스타트업 회사인 오픈에서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로 활약한



바 있으며, 혁신적인 항공기와우주선을 개발 및 제조하는 ‘스케일드 콤포지트’에서 최고경영자 및 고위 기술직을 역임했다.

벤다이어친 최고기술책임자는 약 20여년간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경험을 갖춘 인재로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쉽원과 개인용 전기 항공기인 블랙플라이 등 16대의 획기적인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증시 박스권 횡보... 동학개미, 공모주·코인으로 이동하나

코스피 한달 넘게 박스권 장세 불안정 증시에 대안찾기 분주 일평균 반대매매도 28% 늘어 공모주·가상화폐 유입 증가세



코스피가 전일 대비 75.11포인트(2.45%)하락한 2994.98로 장을 마감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30.29포인트(3.23%)하락한 906.31, 원·달러 환율은 1.60원 오른 1112.2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국내 증시가 1개월 이상 횡보 국면을 보이자 '동학개미(국내 주식을 직접 사는 개인투자자)'들이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은 급감했다. 공모주와 비트코인 등 수익률이 높은 대체 투자처를 향해 자금이 이동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스권 증시...개미 반대매매 위험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5.11포인트(2.45%) 하락한 2994.98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 개인의 순매수액도 급감했다. 지난 1월 개인의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순매수 금액은 27조988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23일까지 2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은 7조491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증시가 조정장을 맞이하자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강제 로 주식이 매도되는 반대매매 금액도

증가했다. 증권사는 주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 하락하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식 반대매매 금액은 30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반대매매 금액은 일평균 22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173억원)와 비교했을 때 27.74%가 늘었다.

◆대안은 공모주·비트코인?

증시가 박스권에서 오르내리자 비교

적 수익률이 높은 공모주와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모주 열풍에 이어 올해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LG 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등 기업공개(IPO) 대어들의 상장이 잇따를 예정이다. 이달 들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

의 순매수 상위 종목 5위에 제약회사인 피비파마(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12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전자부품 제조 업체 솔루엠이 등장했다. 지난 2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피비파마 3270억원, 솔루엠 1420억원을 순매수했다.

또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3개월 연속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과 달리 공모주 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공모주 펀드에만 9261억원의 금액이 유입됐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에는 다수의 대형 우량 종목 IPO가 대기하고 있다. 공모금액 기준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기 적기"라며 "여기에 공모주 청약 관련 제도 변경으로 직접 공모주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균등배정을 선택해 청약하고, 공모주에 더 투자하고 싶은 경우 공모주 펀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공모주 펀드는) 운용전략에 따른 성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어떤 운용전략으로 운용되는 공모주 펀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활발히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초 8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현재 개당 56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5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회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65%, 거래량은 119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회원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53%, 12월 63%에 이어 한달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는 24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실시간 인기 애플리케이션(앱)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비트코인 거래량과 선물미결제약정 규모가 늘어나며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줄어 들고 있고, 기관투자자들도 서서히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인기... 400여곳 신청

주총 관련 입력사항 자동화 주주 인증방식도 세가지 지원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이 상장법인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

온라인 주총장은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총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가능했던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을 진행하는 기업과 직접 이용하게 될 주주의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비스 오픈 첫해인 지난해 가입 기업의 두 배에 달하는 400여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특히 주총 관련 입력사항을 자동화해 그동안 기업의 주총 담당자들이 수기로 입력했던 주총관련 공시 등의 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온라인 주총장 시스템으로 바로 전달된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주총장 가입 기업이 원활하게 주총을 개최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기업별 전담직원을 배치해 세부적인 실행과 운영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을 이용했던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CFO)는 "처음 진행하는 과정이라 익숙치 않았는데 전담직원의 도움을 통해 잘 진행했다"며 "이용법이 간편해 주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

주위에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증권은 주주들이 온라인 주총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주인증과정에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Pass 앱인증' (3월 도입 예정) 세 가지 방식을 지원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췄다. 또한 간편 인증을 통해 주주 뿐만 아니라 비주주들도 해당기업의 주총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훈 삼성증권 한상훈 영업솔루션 담당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주총장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와 컨설팅 요청이 한층 늘었다"며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본사와 지역별 영업본부가 협업해 기업별 특화된 주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

코스닥협회, 장경호 신임 회장 선출

장경호 이노스첨단소재 대표이사(사진)가 코스닥협회 제 12대 신임회장에 낙점됐다. 코스닥협회는 24일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해 신규 임원을 선임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올해의 키워드로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성장의 엔진, 코스닥'을 내세우며 '코스닥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코스닥시장의 내실 있는 발전, 뉴노멀 시대의 대응력 강화'를 중점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코스닥기업의 제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사업 추진 및 정책지원 강화 ▲회원의 기업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전개 ▲코스닥기업 임직원을 위한 분야별 실무지원 지속 추진 ▲



코스닥기업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코스닥기업 성장동력 확보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등 추진 ▲다양한 채널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등을 선정했다.

김경수 앤씨앤 대표이사 등 4명이 신임 부회장,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이사 등 7명이 신임 이사로, 이재호 테스 대표이사가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장경호 신임 회장은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고 협회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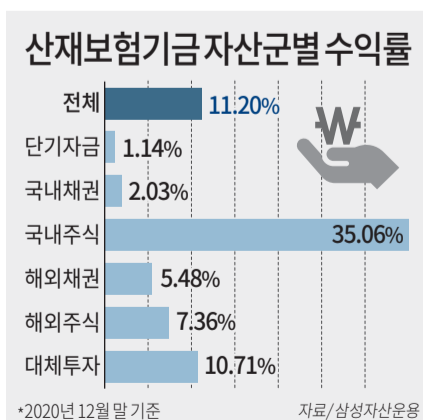
삼성자산운용, 22조 규모 산재보험기금 수익률 11% 기록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 주효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2조원 규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 수익률이 지난해 11.20%를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극심했음에도 리스크 관리와 목표수익률 초과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상 및 관련 보험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고용노동



부가 관리한다. 운용수익률 11.20%는 기준수익률보다 0.92%, 목표수익률과 비교하면 7.73% 초과하는 성과다.

기금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이 주효했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자

산운용은 포트폴리오에 글로벌 자산군 편입과 대체투자 부문을 꾸준히 늘리며 수익 원천을 다양화했다. 또한 적극적인 전술적 자산배분과 스타일 배분 전략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수익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고용노동부와 중간운용사 사이의 긴밀한 협업 체계도 한몫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체계를 도입한 2015년 이후 삼성자산운용을 2회 연속 중간운용사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성과평가 부문별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중간운용사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했다.

/송태화 기자

디지털 자산관리 '내 자산 바로보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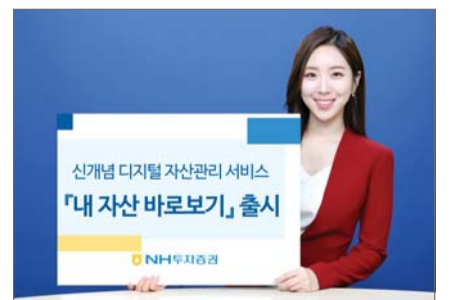
NH투자증권, 위험지표까지 한번에

NH투자증권이 신개념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 자산 바로보기'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내 자산 바로보기는 단순 잔고 및 수익률 조회가 아닌 고객의 금융소득·양도소득, 절세계좌 현황, 그리고 보유주식의 위험지표 현황까지 한번에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소득·양도소득현황에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세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 매매차익, 국내주식 대주주 여부를 제공한다.

금융소득에서는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상



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으로 나뉜다. 해외주식은 매년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데,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예상 양도세액을 계산해서 제공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해당 여부와 어느 종목이 해당되는지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용산시대
소액투자예 주목하라!

AIR 181 park

용산, 그 中心에 서다! 압도적인 미래가치 에어 181 파크

총 18세대! 남산,한강,용산공원 숲세권까지 갖춘
프리미엄을 누리다

용산의 중심. 역세권의 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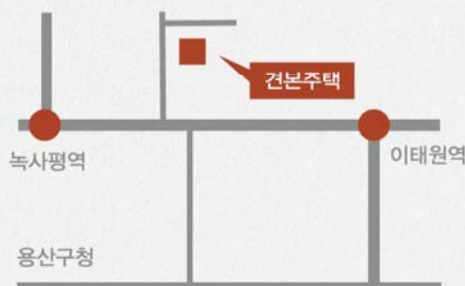
[에어 181 파크]



GRAND OPEN

- 3월 준공예정 -

현재분양중 / 4억대



실투자금1억대 | 다양한 개발호재 | 완벽한 생활 인프라 | 최상의 직주근접

최적의 소액 투자

용산민족공원.한남뉴타운.

한강.남산.용산공원의 숲세권

녹사평.이태원역도보5분.
최상의 교통망

02) 794-9599 분양면적51.70㎡ 총18세대 (일부 세대 테라스, 정원, 시티뷰)

현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81-40
분양사무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207-6 에어원빌딩
(주)에이원 리얼트루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181-40/건축규모: 지상5층, 연면적921.35㎡ / 면적은 인허가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홍보물에 적용된 사진,이미지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



(주)에이원 리얼트루



매물부족·전세난에 ‘내집마련’ 움직임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매물 부족과 전세난 등으로 수요자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131가구로 전월(3183가구) 대비 약 33.05% 줄었다. 아파트 매수심리는 수도권 외곽까지 확산

하는 모양새다. 경기도청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629가구에서 작년 말 초 분양 연기 등 각종 부동산 정책 풀이된다.

도보권에 북수원역... 학세권 갖춘 대단지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GS건설

GS건설은 오는 3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일대 들어서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를 분양한다.

수원시 111-1구역(정자동지구)을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는 2607가구의 대단지로 48~99㎡ 15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별로는 ▲48㎡ 113가구 ▲59㎡ 730가구 ▲74㎡ 246가구 ▲84㎡ 435가구 ▲99㎡ 74가구 등이다.

북수원자이 렉스비아의 단지 명으로 쓰인 ‘렉스비아’는 라틴어로 임금, 왕이라는 뜻을 가진 ‘렉스(Rex)’와 길, 도로의 의미를 지닌 ‘비아(Via)’의 합성어다. 주변이 조선 말기 정조대왕이 수원을 행차할 때 오갔던 길이라는 뜻에서 따왔다.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수원자이 렉스비아의 도보권에 2026년 인덕원~동탄 북선 전철 북수원역이 개통 예정이다. 북수원역 개통시 환승을 통해 사당역과 강남역 등 서울 도심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으며, 경수대로(1번 국도), 영동고속도로(북수원 IC),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또한 파장초, 다솔초, 천천초, 천천중, 천천고 등 도보권 내 학교가 있다. 재래시장인 북수원시장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으며, 화서역 인근에는 스타필드수원이 2024년 개장한다. 정자공원, 만석공원 등 주변 공원이 많은 것도 강점이다. 특히 만석공원은 만석거(옛 일왕저수지)를 중심으로 산책로, 중앙호수공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다목적 운동장 등이 마련돼 있다.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는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권과 채광이 양호하다. 또 GS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1661-4386)

단지 내 영화관 등 인프라... 테마공원서 ‘휴~’

인천 시티오씨엘 3단지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건설

인천 용현학의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City Ociel) 내에서 첫 분양 단지가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 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시티오씨엘 3단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아파트 75~136㎡ 977가구, 오피스텔 27~84㎡ 902실 등 1879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6개관 730여석 규모 (7,320㎡ 규모)의 영화관이, 지하 1층~지상 3층까지는 단지 내 상업시설(3만 3882㎡)이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는 ▲75㎡A 124가구 ▲75㎡B 83가구 ▲84㎡A 299가구 ▲84㎡B 231가구 ▲84㎡C 68가구 ▲101㎡ 170가구 ▲136㎡ 2가구 (펜트하우스) 등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7㎡ 246실 ▲52㎡ 164실 ▲66㎡ 246실 ▲84㎡ 246실 등 소형아파트 일부 대체 상품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시티오씨엘 3단지는 시티오씨엘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현재 무정차역으로 통과하고 있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을 걸어서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수인분당선은 1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월관선(예정), 4호선, 에버라인선, 신분당선, 경강선, 2호선, 3호선, 5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상당수 지하철 노선과 환승된다.

편의·문화시설은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3만 3882㎡)과 영화관(7320㎡ 규모)이 있는 것을 비롯해 시티오씨엘 내에 조성 예정인 중심상업용지(약 7만 1,659㎡ 규모)와 인천 뮤지엄파크(예정)도 단지와 마주하고 있다.

시티오씨엘 3단지에는 9개의 테마가 있는 공원 및 휴게공간이 조성 된다. 단지 중앙부를 따라 바이탈트렉(트레이)이 있는 주민운동시설, 중앙광장(포레파크), 휴게광장(블루밍파크) 등 공원 및 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032)831-1141

교육친화적 입지에 공원·병원 등 인프라 풍부

대구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금호건설

금호건설은 이달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에 들어서는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를 분양한다.

배나무골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는 59~84㎡, 433가구 가운데 270가구를 일반 분양된다. 일반분양 공급면적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기준 ▲59㎡A 73가구 ▲59㎡B 4가구 ▲73㎡ 104가구 ▲74㎡ 78가구 ▲84㎡ 11가구다.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는 도보 거리에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달구벌대로, 명덕로, 신천대로 등도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대봉초, 대구중을 비롯해 대구고, 경북여고, 경북대사대부고, 대구교대 등이 가까워 교육친화적 입지를 갖췄다. 게다가 인근으로 신천수변공원이 위치해 신천둔치 산책로 및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수성구, 중구와 맞닿아 있어 수성구의 교육 인프라는 물론, 대백프라자, 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트리플 생활



권이다.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신천의 생태복원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진행되는 신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신천 녹도 조성 사업’ 등을 핵심 사업으로 신천을 자연,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는 5개 타입, 대부분의 세대가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 및 환기가 우수하며 파우더 및 드레스룸을 설치한다. 또 가변형 벽체(일부 세대)를 설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 선택이 가능하며, 팬트리도 유상옵션으로 제공한다.

단지 중앙부에는 광장 역할을 겸한 레인보우가든이 설치되며, 단지 곳곳에 작은 쉼터인 썬쉽터(5개소)가 있다. (053)431-9600

업무지구 인접... 광역도로망 기반 ‘교통호재’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중흥토건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이달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3주택재건축 구역에서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59㎡·84㎡ 1021가구 중 86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는 서안산IC, 군자IC,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기반으로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 신안산선(2024년 예정)을 품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 단지 인근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한도병원, 고대안산병원, 안산시청 등 생활인프라가 마련돼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와 도서관이 가깝고 각종 공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반월 국가산업단지(안산 디지털파크,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등) 업무지구(안산 디지털파크,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등)가 자리하고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Bay) 설계(일부 제외)로 구성된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59·84㎡ 중소형 타입으로 조성된다. 또 지상에 차가 없는 안심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더해질 예정이다.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는 서안산IC, 군자IC,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갖췄다. 여



기에 지하철 4호선 초지역, 안산역과 서해선 선부역을 통해 수도권 곳곳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안산시를 출발해 시흥시, 광명시를 거쳐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및 여의도 등을 잇는 신안산선이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 가까이 반월 국가산업단지, 안산 디지털파크,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등 업무지구(안산 디지털파크,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등) 업무지구(안산 디지털파크,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등)가 자리하고 있어 통학 걱정을 덜어낼 뿐만 아니라 선부도서관과 석수골 작은도서관도 가깝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59·84㎡의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된다. 한편,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2에 마련될 예정이다. (031)410-1021

임 한 발 빨라졌다

보면 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양주시 42가구가 크게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여파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컸던 것으로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교통·상업·업무 핵심입지서 바다조망 누리요”

마트·시장 인접, 교동공원 등 녹지공간 갖춰

부산 롯데캐슬 드메르 롯데건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지에 1221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다. 롯데건설은 오는 3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롯데캐슬 드메르' 45~335㎡, 1221실을 분양한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상업·업무의 핵심입지에 자리한다. 국내 첫 항만 재개발 사례인 부산항은 특히 북항 재개발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 착수될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부산시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항만과 철도뿐 아니라 원도심까지 조화롭게 복합 연계 개발된다.

먼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과 초량역이 가까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북항 재개발지역과 도심의 연결하는 '씨베이파크선(C-Bay~Park·트램)'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교통 여건은 더 향상될 전망이다. 씨베이파크선 1-1단계는 지상을 달리는 1.9km 길이 무가선 저상트램으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 5곳에 정차할 예정이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을 출발해 현 1부두 인근 복합도심지구, 오페라하우스, 도심 환승센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이른다. 단지 인근 인프라시설로 마리나와 오페라하우스 등 해양 레저시설은 물론 문화시설까지 속속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부산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 내 총 18만9000㎡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 타입은 부산항대교와 북항을 바라보는 등 영구적인 바다조망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타입에서는 산과 도심 조망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한다. '롯데캐슬' 브랜드로 조성되는 만큼 단지 내에는 지상 3층과 51층에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한편, 생활숙박시설은 청약 통장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가 자유롭게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051)741-1221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두산건설

두산건설은 이달 강원 삼척시 정상동에서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74~114㎡ 736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A 167가구 ▲74㎡B 51가구 ▲84㎡A 171가구 ▲84㎡B 149가구 ▲99㎡ 128가구 ▲114㎡ 70가구 등이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는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홈플러스(삼척점), 하나로마트(교동점), 삼척중앙시장, 삼척시 보건소 등이 위치하며 강원도 삼척의료원, 삼척 고속버스터미널, 삼척시 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교동공원, 정라공원, 봉황산 산림욕장, 새천년해양유원지 등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 직선거리 약 1km 내에는 동해바다가 위치해 단지 내 바다 조망권이 확보된다.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7번 국도 이용 시 인접 지역인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울진군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동해고속도로를 통해서는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의 KTX 동해역이 지난해 3월 개통됐다.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포함시에서 강원도 동해시를 잇는 동해선 전



철화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동해선 중 유일한 비전철 구간인 영덕~삼척~동해 구간을 전철화하는 해당 사업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해당 산업단지에는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GS칼텍스,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처 등을 포함해 19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한 국립병원인 강원도 삼척의료원, 공영방송국인 MBC 강원영동 삼척방송국 등도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삼척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된 청약 조건이 적용된다. 삼척시와 강원도 내 만 19세 이상 거주자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할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 직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033)572-8988

재건축·교통 등 개발 호재에 '상승세 뚜렷'

규제서 자유로운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

은평뉴타운 파크엔타워 (주)파크엔홀딩스

(주)파크엔홀딩스는 오는 3월 '은평뉴타운 파크엔타워(이하 파크엔타워)' 211실을 분양한다. 서울 은평구 진관3로 36 일원에 위치하며, 연면적 약 1만7483㎡ 규모로 색션오피스와 함께 교육·스포츠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파크엔타워'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도보 3분 거리인 역세권으로,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일대 핵심상권인 대형복합시설 '롯데몰'이 가깝고, 은평성모병원·산업인력공단·소방학교(예정) 등이 인접해 있다.

이 단지는 색션오피스와 교육·스포츠문화시설 2개동으로 설계된다. 먼저, 오피스 동은 경우 특화설계 개방형 테라스(일부), 공용 회의실, 친환경 브릿지 등을 설치해 업무와 휴식을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어 교육·스포츠문화시설은 글로벌 영어 전문 브랜드인 '라이즈어학원'을 필두로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등의 입점이 확정됐다.

'파크엔타워'가 들어서는 은평뉴타운은 서울에서 저평가된 지역 중 하나로 수색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GTX-A 노선 연신내역



(2023년 예정) ▲서부선 경전철(2028년 예정) ▲고양선 경전철(2028년 예정)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예정) 등 교통호재로 상승세가 뚜렷하다.

색션오피스란 규모가 큰 업무용 빌딩을 다양한 크기로 분할 또는 통합해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무실 내 자유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단지는 일부 호실에 개방형 테라스 설계를 도입해 쾌적한 근로 환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말산과 진관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친자연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룬 설계로 '숲세권 색션오피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스포츠문화시설로 ▲글로벌 영어 교육 브랜드 '라이즈어학원' ▲카카오 게이밍 스크린 골프장 '프렌즈 스크린' ▲대형 볼링장 등이 들어선다. (1877-2415)

광명 티아모 IT타워 다운종합건설

다운종합건설은 경기 광명시 하안동 304외 4필지에서 지식산업센터 '광명 티아모 IT타워'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6층, 연면적 5만6670㎡, 458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상품별로는 ▲지식산업센터 363호실 ▲업무시설 28호실 ▲근린생활시설 67호실 등이다.

'광명 티아모 IT타워'가 위치한 하안동 일대는 서울 금천구와 바로 인접한 수도권 서남부의 관문 입지로 반경 2km 내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이용 시 2·3호선 환승역 고속터미널역까지 약 20분 이면 이동 가능하다. 1호선 독산역을 통해서는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약 2분, 용산역까지 약 20분 거리다.

도로망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및 광역도로와 연결된다. 도보권 내에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역상선 우체국사거리역이 신설(추진중)될 계획이다.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산대교 남단~금천IC 구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의도, 마포, 광화문·종로 등 서울 도심의



로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개통된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도 공사중으로 오는 2025년 개통시 수도권 서남부 주요 도시 이동이 수월할 전망이다. 단지를 둘러싸고 구름산과 도덕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안터생태공원, 철망산근린공원, 독산근린공원, 안양천변공원 등 크고 작은 녹지시설도 인접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종 세제혜택 및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실입주 기업의 경우 취득세 50% 및 재산세 37.5%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에도 영향이 없다. 또한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02)899-7071

‘신현수 파동’에 野, 文 겨냥 맹공... “참모진 관리 허술”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서 비판
국민의힘 “사실상 패싱” 지적에
유영민 “패싱 아냐... 논란 송구”
野 “사표 결론 못 내리냐” 지적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신수석은 법무부와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서 ‘패싱 논란’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업무보고에서 “신수석이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 당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인사권자가 결제를 하기 전에 인사를 발표한 게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최근 사태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께 또 다른 작년의 법무부, 검찰의 여러 가지 피로도를 준 데 있어서 또 그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

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수석이 고위급 검사 인사 과정에 ‘패싱 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문 대통령이 신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원만한 협조 관계를 가져라’는 것인데, 이게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며 “(패싱설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실장은 “다만 마무리 인사 확정 단계에서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 있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 재가가 올라 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됐다’고 생각했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 협의에 데 있어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며 마무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 실장이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 승인, 언론 발표, 전자결제 등 순서로 진행하고 그 과정은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 인사는 국법 상의 행위로 승인된다”며 “결제하는 순간 대통령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인사를) 발표하거나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냐. (과거에도) 전부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실장은 고위급 검사 인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한 지적을 두고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언론에 발표한다. 이어 (인사권자가) 전자결제를 하는 등 과정이 정확하게 지켜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고위급 검사 인사 최종 결제를 누가 올렸냐는 질의에 “그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영민 실장이 ‘신수석이 사표 낸 상태이고, 지난 월요일(22일)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했다. 사표 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지금 (신수석의) 사표는 제출된 상태인데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도, 반려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냐”고 비판했다.

유 실장은 주 원내대표의 지적에 “(신수석은)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 신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한 역할이 있고, 아직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라 (대통령의 판단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며 “그러나 일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여러 고민을 하고 결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수석 사의 표명을 해프닝으로 비취볼 때 민정수석 의견이 존중되지 못했고, 신수석과 대통령 간 약속은 거짓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인사) 제청 과정에서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조율하게 돼 있다. 통상 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의견을 들어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거기에 민정수석의 결제 라인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희용 의원은 유 실장에게 “한 언론을 보면 인사 협의 과정에서 중앙지검 거취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박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냐’며 신수석을 몰아세웠고, (이에) 신수석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여기서 박 장관이 말한 우리 편은 누구냐”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해당 질문에 “언론 내용을 봤지만 확인은 안 해봤다. 아마 저런 말을 (박 장관이 신수석에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짧게 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2.5단계까지 3분의 2 등교

초·중등 학부모 70% “찬성” vs 교사 “반반”

찬성 이유 “학교생활 적응 문제”
반대 이유 “거리두기 어려워”

학부모들 가운데 70%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까지 학생 밀집도 3분의 2로 등교를 확대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3단계전까지 학생들의 등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등교 원칙을 완화해 등교 인원을 ‘3분의 2’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학부모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 초등학교 학부모 10만5268명 중 74.2%인 7만8144명은 찬성했고 2만7124명(25.8%)은 반대했다. 중학생 학부모는 예비 중1 13만4288명 중 2만6173명(76.3%)이, 다른 학년 학부모 2만1647명 중 70.7%가 각각 찬성했다.

반면 교사들의 의견에서는 ‘반대’ 비

율이 커지며 찬반이 엇갈렸다. 초등학교 교사 6529명 중 3726명만이 찬성했다. 57.1%로 과반수다. 나머지 42.9%인 2803명은 반대했다. 중학교 교사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 4200명 중 2172명(51.7%)은 찬성, 2028명(48.3%)은 반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중학교 1학년 ‘매일 등교’로 등교 원칙을 완화하는 데 대해 학부모 70% 이상이 찬성했다. 특히 중등 입문 학년인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찬성 의사 비율이 높았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등교 확대 방안에 대해 예비 중학년 1학년 학부모의 71.8%가 찬성했다.

반면 중학교 교사와 다른 학년 학부모는 절반 가까이가 반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다른 학년 학부모는 55.2%가 찬성했으며, 교사는 약 53%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초등학교 및 예비 중1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교생활 적

응’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1 매일 등교에 찬성한다고 밝힌 예비 중1 학부모 중 59.4%가 ‘학교생활 적응’을 이유로 꼽았으며, 다른 학년 학부모는 64.2%, 교사는 73.3%가 같은 이유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1을 제외한 중학교 기타 학년 학부모에서는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이 비슷하게 높았다.

등교 확대 반대 이유로는 ‘학교내 거리두기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반대한다고 밝힌 예비 중1 학부모 61.3%는 ‘학교내 거리두기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며, 다른 학년 학부모는 교사는 63.5%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19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상대로 등교 확대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 16만1203명, 교사 1만729명이 설문에 답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여대 교수평의회가 24일 학내 5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앞에서 ‘제9대 서울여대 승현우 총장 취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

서울여대 교수들, 신임총장 사퇴 요구

‘총장 취임 반대’ 집회 열어
“이사회 구성원 투표절차 무시”

서울여대 교수들이 신임 총장 취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는 24일 10시 30분 학내 5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앞에서 ‘제9대 서울여대 승현우 총장 취임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여대는 지난해 12월 간선제로 시행된 신임 총장 선거에서 대학 구성원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추천한 1순위 후보 대신 정의학원 이사회(이사장 송재식)가 2순위 교수를 총장으로 선발하면서 내용을 겪고 있다.

주창윤 교수평의회장(언론영상학부 교수)은 “교수평의회는 학내 구성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달 20일 승 총장을 불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에 실시한 총장 선거 1차 교수 투표 결과, 김명주(정보보호 교수) 후보가 88표(42.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기숙(기독교학 교수) 후보가 49표(23.9%)를, 승현우(정보보호 교수) 후보가 33표(16.1%)를 얻었다.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2차 결선투표에서는 김명주 후보가 119표(63%)를, 김기숙 후보가 70표(37%)를 받았다. 이사회가 선임한 승현우 후보는 2차 교수투표조차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12일 실시한 직원투표에서도 김명주 후보 58표(65.9%), 이창석 후보 15표(17.0%), 승현우 후보 9표(10.2%)였다.

같은 해 11월 30일 총장추천위원회 투표결과 역시 김명주 후보와 승현우 후보가 각각 11표(73.3%), 4표(26.7%)를 받았다.

하지만 정의학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승현우 정보보호학과 교수를 제9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결국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2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이사회가 선임한 승현우 총장을 불신임하기로 의결했다.

주창윤 회장은 “이번 총장선거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간선제도 아닌 사실상 임명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진 기자

휴가 병사, ‘모바일 승차권’으로 기차 탑승

국방부, 코레일과 손잡고 서비스

국방부는 병 휴가시 ‘코레일톡’ 앱에서 열차 승차권 예약과 발권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병 철도 예약 서비스는 지난

해 7월 국방부가 휴대전화 전면사용과 함께 제공한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청년DREAM, 국군드림’ 앱은 철도 승차권 예약 후 TMO(국군 철도수송 지원반)에 방문해 승차권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KORAIL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코레일톡’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철도 승차권’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이로써 휴가 병들은 철도예약부터 승차권 발권까지의 전 과정이 모바일 기능을 통해 해결돼, 개인 휴대폰에서 ‘모바일 승차권’ 확인만으로도 바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됐다. /문형철 기자 captim@

THINKWARE

아이나비

아이나비 CONNECTED

스마트폰으로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아이나비 QUANTUM 2
국내유일 전후방 QHD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Connected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술) Connected 기술을 탑재하여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차 충격 알림**
외부 충격 당시 촬영된 스틸 컷 전송
- 차량 위치 확인**
스마트폰 App으로 차량 위치 확인
- 원격 전원 제어**
스마트폰 App으로 블랙박스 전원 Off
- 차량 정보 표출**
배터리 잔량, 연비 등 차량 정보 확인

아이나비 CONNECTED

전·후방 320° QHD

F1.6 후방렌즈 | Vision BSD | Extreme ADAS | 울트라 나이트 비전 | 전방위 주차녹화 | 주차 저전력 강화 | Format Free 2.0 | Drive X



기정원, 도로공사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한국도로공사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발전을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24일 밝혔다. (왼쪽부터) 장현성 기정원 협력사업본부장과 도로공사 이창봉 혁신성장본부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신한카드, 메리츠증권·가이온과 데이터사업 맞손

신한카드는 메리츠증권, 가이온과 공동으로 국내 거시경제와 산업전반에 대한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배준수 메리츠증권 부사장, 안중선 신한카드 부사장, 강현섭 가이온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한국엔컴퍼니

취약층 지원 이웃사랑 성금 사랑의 열매에 11억원 기탁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11억원을 기탁했다.

한국엔컴퍼니는 2003년부터 사랑의열매에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 11억원을 포함 누적 약 120여 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서울지역(서울 사랑의열매), 대전지역(대전 사랑의열매), 충남지역(충남 사랑의열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뜻 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에 최원혁 판토스 대표 재선임



최원혁 판토스 대표(사진)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더 이끌게 됐다.

통합물류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인사동 협회 사무실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현 회장인 최원혁 판토스 대표를 제7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타다 라이트 서울 1기 가맹주 모집

타다의 가맹택시 '타다라이트'가 서울지역 개인 택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1기 가맹주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타다는 서울 개인택시 면허를 보유하고 출고 4년 이내의 배기량 1600cc 이상 중형택시 차량을 소지한 개인 택시 사업자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1기 가맹 사업주들에게는 가맹택시 가입비, 최초 교육비, 자재와 공임비 면제 등 10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검찰개혁만 하다가 날 새겠다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검찰개혁은 현 정권의 지상 최대 과제다. 집권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러는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인 지금도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연스레, 검찰이 마치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 악' 취급을 받고 있다. 검찰도 엄연한 정부 조직인데 말이다.

성과물은 초라하다. 오히려 과거를 되돌아보면, '도대체 검찰개혁이 뭐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나' 싶을 정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5년 사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등관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은 나라를 이천투구관으로 만들어놓고 떠났다. 이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검찰개혁에만 힘을 쏟았으나 결국 상처만 입고 퇴장했다. 오히려 검찰개혁 이슈로 일반 국민 사이를 둘로 쪼개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떠났다. 게다가 그들은 검찰개혁을 '풀지못한한(恨)'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도 SNS에 각종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개혁을 한다며 검찰과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 국민은 피곤하기만 하다. 국민의 피로도가 심하게 누적됐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 하락이 방증해준다.

예전 군부독재시절 가장 많이 들던 말 가운데 하나가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다. 실제로도, 검찰이란 조직은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부터 권력자를 지키는 시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굴 잡아넣으려고 하면 잡아넣었고, 누굴 봐주려고 하

면 눈감아줬다. 그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보는 집권 여당이 검찰개혁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검찰은 시녀일 뿐, 권력 그 자체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은 권력 자체에 있다는 얘기다. 권력이 부패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언제든 검찰은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써 기능을 한다는 의미다. 지금 정권도 검찰개혁을 한 다곤 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는 힘을 실어주고 자신들이 불편한 사안에는 힘을 빼려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지금 정권이 왜 저렇게 검찰개혁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나 경찰에 불 일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은 그저 검찰개혁을 한다니까 그런가보다 싶은 정도다. 검찰개혁이란 원론적인 수준에서 동의할 뿐,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싸우는 꼴을 5년째 보고 싶지 않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국가 전체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위협받고 있고, 가뜰이나 저성장 기조 속에 코로나19까지 가세해 민생이 피폐해진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갈수록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5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이런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빈부간 격차는 이전 정부보다 더 커졌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평범한 꿈을 포기한 채 빚을 끌어댕겨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투기 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오로지 검찰개혁만 되면 모든 게 풀리는 것처럼 검찰개혁만 부르짖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치·정책부장 yhj@metroseoul.co.kr

삼성, '지속가능 발전' 청년리더 4명 추가 선발

'제너레이션17' 프로그램 확대 ECOSOC 청소년 포럼 등 활동

삼성전자가 유엔개발계획과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이끄는 청년 리더를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프로젝트 '제너레이션 17'에 참여할 청년 4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너레이션17은 2030년까지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 UN 75 주년을 기념해 젊은 세대들의 동참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리더는 C랩 아웃사이드에도 선정된 바 있는 두브레인 최예진 대표와 브라질 빈민촌 청소년 기본권 신장 활동가 다니엘 칼라코, 레비는 지역사회 활동가 나딘 카울리, 투명한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유리 로마쉬코 등이다. 종전



삼성전자 프로젝트 '제너레이션 17'.

에 4명과 함께 총 8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청년 리더들은 그동안 다양한 유엔 행사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50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해왔다. 올해에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청소년 포럼 2021을 시작으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청년 리더들에 최신 갤럭시 기기와 기술을 지원하며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갤럭시 사용자들이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플

랫폼 '삼성 글로벌 골즈'로 활동 상황을 지속 공유하게 된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 최승은 전무는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청년 리더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갤럭시가 구축한 에코시스템과 의미 있는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chim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 사무총장은 "유엔개발계획은 삼성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커뮤니티,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리더들이 회복과 개선의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우수사업장평가 '최우수'

전남 여수시가 주관한 '2020년 여수산업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평가'에서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24일 여수산업 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 공적 심의 위원회는 무사고 사업장의 유지와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 시설투자 실적 등을 기준으로 총 4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은 1등 사업장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은 공정안전

관리 및 안전관리시스템(PMS·SMS)의 최첨단화, 가스감지기 및 소화장비 등 시설투자 확대를 인정받았다. 특히 협력업체와 위험작업의 안전관리계획을 합동 점검하면서 화재폭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케미칼 부문은 지속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과학 전문 컨설팅 업체인 '피델리티 솔루션'에서 안전 리더십 컨설팅도 받았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인사

-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경제조사본부장(전무이사) 이경상 △국제본부장(상무이사) 강석구 ◇보임 △총괄전무이사 박종갑 △회원본부장(상무이사) 박동민 △산업조사본부장(상무이사) 박재근 △공공사업본부장(상무이사) 노금기
- ◆건강대병원 ◇교원 △진료부장 겸 소화기센터장 구훈섭 △교육수련부장 문주익 △기획조정1부실장 황원민 △적정진료관리1부실장 이영진 △홍부외과장 구관우 △신경외과장 이철영 △생명사랑위키대응센터장 김승준 △생명사랑위키대응부센터장 류현식 ◇직원 △총무팀장 겸 설비공무팀장 김선겸 △교육혁신팀장 강인구 △관재팀장 김대환 △수련팀장 김정욱 △서비스

SKT

5G·AI 특허 기술 선도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발표

SK텔레콤은 글로벌 특허 솔루션 전문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이하 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에 등재됐다고 24일 밝혔다.

클래리베이트는 다양한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특허 등록 건수·영향력·등록률·글로벌 시장성 등 4가지 지표를 통해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SKT가 클래리베이트의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된 것은 이동통신 및 5G·AI·미디어·보안 등 특허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혁신팀장 이미연 △시설팀장 이의준 △약제팀장 이지영 △외래간호팀장 이귀연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 디지털뉴스부 총괄팀장 박성준

◆조달청 ◇과장급(공모직) △공사관리과장 윤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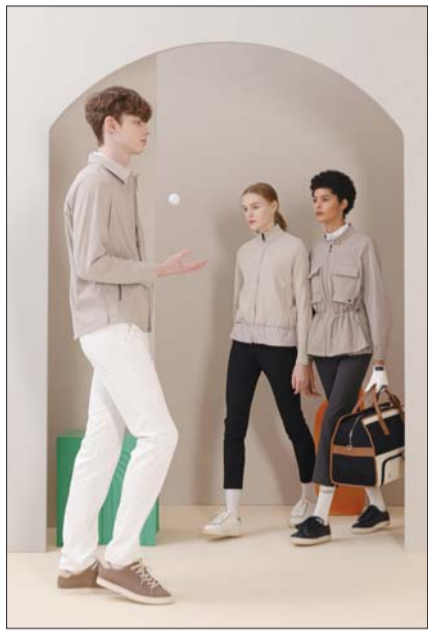
부음

▲전광진(전 전북대 교수)씨 별세, 오수자(전 초등학교 교사)씨 남편상, 전영우(MBC 통합뉴스룸 주간뉴스팀장)·전영은(의상 디자이너)·전영경(미술 작가)씨 부친상=23일 오후 10시11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우원정씨 별세, 우현재(우주씨앤티 대표)씨 부친상=24일 오전 4시 40분,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26일 오전.

돌아온 골프의 계절... 더 젊고 세련되게 '나이스 샷'

유통업계, 골프웨어·용품 행사
롯데백 잠실점 브랜드 특가 할인
닥스골프 봄·여름 신상 컬렉션 출시



닥스골프의 2021 S/S 컬렉션 화보 이미지. LF

골프 시즌이 본격화하는 3월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골프웨어·용품 구매 고객들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연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골프 유입 인구를 사로잡을 세련된 콘셉트의 봄여름 컬렉션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스포츠활동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515만명으로 추정되며 연간 골프장 이용객수는 약 4000만명에 육박했다. 해외여행길이 막혀 골프, 등산 등 레저 활동을 택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골퍼들도 클럽 등 장비 교체에 여윌돈을 투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28일까지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열고, S/S 골프 신상품 구매 고객들을 향

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국내외 골프 브랜드를 27개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골프 매출 1위 점포답게 올해는 총 50억 물량의 행사를 전개한다.

먼저 8층 행사장에서는 19개 브랜드가 참여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보그

너, 블랙앤화이트, 엠유스포츠 등 해외 직수입 브랜드 골프웨어를 최대 40~60% 할인 판매한다.

슈퍼리어, 핑, 캘러웨이 등 국내 유명 브랜드 및 라이선스 브랜드의 의류 상품도 40%에서 80% 할인한다. 나이키 골프, 아디다스골프 등의 인기 골프화는 최대 60% 저렴하다. 대표 품목으로는 블랙앤화이트 티셔츠 18만원, 보그너 점퍼 37만800원, 나이키골프 골프화 10만9000원 등이 있다.

또한 골프용품은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 잭시오 등의 인기 상품들을 10%까지 할인하고, 프리미엄 골프용품 브랜드 마제스티는 별도 부스를 운영해 20년 프레스티지 모델도 다양한 특가로 내놓는다.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잠실점 6층에 입점된 골프 단일 매장에서 30/60/100만원 이상 구매 시 브랜드에 따라 구매금액 10% 상당의 롯데 상품권 또는 5% 상당 L.POINT를 증정한다. 또한 AK골프에서 골프용품을 100만원 이상 구

매하면 구매금액의 5% 상당 롯데 상품권을 준다.

김재범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본격 라운딩 시즌을 맞이하며 골프웨어 및 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물량 확보에 힘썼다"며 "예전보다 다양해진 골프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잠실점에 입점된 골프 전 브랜드가 참여하는 만큼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골퍼를 즐기는 모든 고객들에게 좋은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F의 브리티시 프리미엄 골프웨어 닥스골프는 젊고 세련된 콘셉트로 변신한 2021년 봄·여름 컬렉션을 출시한다.

닥스골프는 이번 시즌, 온라인 채널에서 소비 활동이 잦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퍼펙트 온 미, 퍼펙트 온 위'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운다. '나와 우리를 위해 선택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메시지를 통해 기존 중장년층 선물

용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넘어 MZ세대 고객층을 상대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골프웨어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닥스골프는 올해 S/S 컬렉션에 브랜드 슬로건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신축성과 착용감이 우수한 유럽 수입 소재를 적극 사용해 스윙 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고, 톤 다운된 색상을 활용해 고급스러우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강조한다. 또 로고리스 디자인을 적용한 아이템도 대거 선보여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영 골퍼를 만족시킨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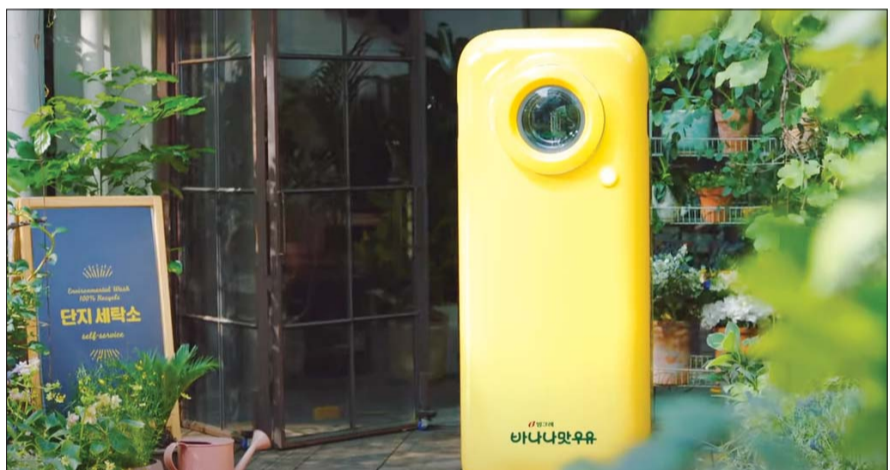
닥스골프는 이번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내달 14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닥스골프봇'을 카카오프러스친구로 등록하는 고객들에게 구매 금액별로 LF몰이나 전국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선사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빙그레, 친환경 활동 앞장... "소비자에 신뢰받는 기업으로"

환경부 주관 '고고챌린지' 참여
'바나나맛우유' 친환경 캠페인
주요 제품 용기·포장지 개선



빙그레 단지세탁기. 빙그레는 온라인 상에서는 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씻어서 분리배출하는 '단지 손세탁 챌린지'를 실시했다.

최근 단순한 소비를 넘어 '가치 소비' 추구하는 트렌드 속에서 빙그레가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24일 빙그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환경부가 주관한 탈플라스틱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참여했다.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한가지씩을 약속하고 다음주자를 지목하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빙그레는 작년에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던 테라사이클로부터 지목을 받아 공식 인스타그램의 빙그레우스가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한번만 쓰고 버리지 않기와 재활용으로 다시 한번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 주자로는 김해시청과 BGF에코바이오를 지목했다.

빙그레의 대표 제품 바나나맛우유를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켜 바

나나'도 실시했다. 바나나맛우유 공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 단계인 '씻어서 분리배출 하자'라는 메시지를 젊은 세대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바나나맛우유 전용 세탁기'를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오프라인 체험관 '단지 세탁소'도 운영한 캠페인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용기를 소비자가 직

접 씻어서 분리배출하는 '단지 손세탁 챌린지'도 함께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여름 스테디셀러 아이스크림 브랜드 더위사냥을 활용하여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실시하는 폭염기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했다. 빙그레 더위사냥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품이 플라스틱이나 필름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친환경 소재

인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인쇄 방식인 플렉소인쇄를 적용해 기존의 그라비아 인쇄 방식에 비해 잔류 용제를 대폭 줄였다. 이런 더위사냥의 친환경적 요소들과 결합해 '저탄소 친환경 생활로 지구온도 낮추자'란 캠페인 문구를 새겨 넣은 특별 패키지 제품을 선보였다. 더위사냥 스페셜 패키지 제품의 수익금 중 일부는 폭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됐다.

빙그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자사 주요 제품의 용기와 포장지도 개선했다. 동종 업계 최초로 요플레 컵에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바나나맛우유 용기에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을 35%(약 1890톤) 사용했다. 또한 꽃게랑 과자 봉지 규격을 축소하고, 닥터캡슐 병을 PET 재질에서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라벨과 동일한 PS 재질로 개선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약 42톤 절감하고 재활용률을 높였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KT&G
'핏 아이시스트' 전국 출시

KT&G가 쉐어링 전자담배 '필 솔리드 2.0'의 전용스티커인 '핏 아이시스트(사진)'를 24일 전국에 동시 출시한다.

'핏 아이시스트'는 앞서 출시된 '핏(Fiit)' 제품들보다 강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부스트 타입 제품으로, 흡연 중 더욱 강력해지는 맛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 '핏 아이시스트'의 판매 가격은 1갑당 4500원이며, 이번 신제품 출시로 전용스티커 '핏'의 제품군은 총 10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신제품은 전국 편의점 4만6000여 개소를 비롯해 플래그십 스토어인 '필 미니멀리즘' 8개소, 인천공항 면세점과 제주 면세점에서 동시 출시된다.

/조효정 기자

KGC인삼공사
신학기 고객 감사 프로모션

KGC인삼공사가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3월 14일까지 진행한다.

'7천명 손다' 이벤트는 정관장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000명을 선정하고 '홍이장군 키즈랩 프로바이오틱스(2개월분)'를 증정한다.

'신학기 프로모션'은 ▲홍이장군 키즈랩 프로바이오틱스 ▲홍이장군 1~3 단계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홍이장군 키즈랩 프로바이오틱스 5포' ▲아이패스 J.M.H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알파 프로젝트 수면건강 5일분'을 제공한다.

또한,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تون칭 ▲화애락 ▲천녹 ▲알파프로젝트 ▲굿베이스 에센셜케어 등 정관장 대표제품에 대한 구매 혜택도 마련되었다.

/조효정 기자

11번가, 스토어 마케팅 서비스 개시

판매자가 고객에 할인쿠폰 제공

11번가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타겟으로 판매자들이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할 수 있는 '스토어 마케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전했다.

11번가 입점 판매자는 누구나 무료로 활용해 단골고객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스토어 마케팅 서비스'는 고객의 소비패턴, 이용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에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고객군을 추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판매자들은 '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구매하지 않는 고객', '최근 내 상품을 2달 연속 구매한 고객', '내 상품을 3번 이상 보았으나 구매하지 않은 고객' 등 현황을 매일 한눈에 보면서 이들에게 '전용 할인 쿠폰'을 발송할 수 있다.

할인 쿠폰 규모는 판매자가 직접 설정 가능하고 판매자가 제공한 쿠폰 혜택은 11번가 모바일 앱 홈 화면과 앱 알림으로 해당 고객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노출된다.

/원은미 기자

티몬, 60개 부문서 세 자릿수 수시채용

티몬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티몬은 상반기 중 정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채용 규모는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티몬이 수시채용으로 뽑는 인력은 세 자릿수에 달한다. 채용 부문도 타임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 기획자(MD) ▲개발 ▲기획 ▲영업 등 총 60여 부문으로 다양하다. 개발 부문의 경우 연말까지 공고를 열어두고 적합한 인재를 지원하면 상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한 핵심인력 채용도 본격화한다. 신규 서비스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신사업 개발 직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서비스 기획자와 딜·상품 서비스 기획자,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연동을 위한 대형 파트너 제휴 연동 부문,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티비온(TVON) 라이브 쇼호스트 및 PD 등을 채용한다. 상반기 중 신입사원 정기 공채도 열릴 예정으로, 전체 채용 인원은 예년보다 증가한다.

/원은미 기자

차바이오텍, 美 바이럴벡터 생산시설 구축... CDMO 공략

〈위탁생산·개발〉

**cGMP 시설 기공식... 올해말 완공
바이럴벡터, 치료제 개발 핵심요소
글로벌 CDMO 시장 경쟁력 확보**

차바이오텍이 미국에서 바이럴벡터(세포 유전자 치료제 핵심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에 본격 나선다.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23일(현지시간) 우수한약품 품질관리기준(cGMP) 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마티카 바이오는 지난해 12월 칼리지스테이션 시텍사스 A&M 대학교 캠퍼스 존에 공장설계를 착수했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cGMP 시설에는 500l 용량의 바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현지시간 23일 오전 10시 미국 텍사스에서 우수한약품 품질관리기준(cGMP) 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오리액터와 글로벌 수준의 제조설비가 구축된다.

마티카바이오는 이 생산시설에서 차세대 항암제 등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활용될 렌티 바이러스 벡터, 아데노부속 바이러스 벡터 등 바이럴 벡터를 생산할 예정이다. 바이럴 벡터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료다. 세계적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바이럴 벡터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2월 발간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 전망과 발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은 2026년 101억 1000만 달러로 연평균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는 "마티카 바이오는 차바이오텍의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4년 완공될 6만5127㎡(약 2만평) 규모의 제2관교테크노밸리 GMP 시설과 연계해 미국, 유럽, 아시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바이오텍은 스위스 론자, 일본 후지, 미국 ABL 등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기업에서 바이럴 벡터 사업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 마티카 바이오에 배치했다. 향후 제2관교테크노밸리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GMP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소병세 마티카 바이오 대표는 "북미를 중심으로 바이럴 벡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차세대 항암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사로 마티카 바이오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보령제약, 세계 첫 나노입자 항암제 독점 판매 올 봄여름 빛넬 남성복 트렌드 '지속가능성'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 체결
SN-38 직접 투여... 치료효과 높여**

보령제약이 지난 23일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와 세계 최초 나노입자 항암제 'SNB-101'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항암분야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SNB-101'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제품 발매 후 10년간 보유하게 된다. 양사는 현재 아시아 15개국에 대한 독점 판매권과 관련한 추가 계약 체결도 협의 중이다.

SNB-101은 항암제 이리노테칸의 항암 활성성분 'SN-38'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나노입자 전달 의약품이다. 이리노테칸은 인체에 투여시 전체의 5% 정도만 활성형 SN-38로 변환돼 항암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변



보령제약 안재현 대표(오른쪽)와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 박영환 대표가 지난 23일 세계 최초 나노입자 항암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되지 못한 이리노테칸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단점을 보인다. 반면, 나노입자 항암제인 SNB-101은 SN-38만을 직접 투여 할 수 있어 치료효과를 크게 높이고 부작용은 줄인다.

SNB-101은 전임상시험 결과 기존

이리노테칸 약물보다 최대 9배의 내약성 및 최대 8배의 종양 내 약물축적을 보였으며,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고형암 마우스 모델에서 단독투여시 기존 이리노테칸 주사제 대비 최대 1.8배의 종양성장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또 화학항암제, 표적항암제, 방사선 치료법 등과 병용요법 진행시 기존 치료제의 단독요법 대비 4배에서 최대 13배까지 항종양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SNB-101은 지난해 11월 안전성, 내약성, 유효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을 개시했으며 고형암(폐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등) 환자를 대상으로 분당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삼성물산패션 데님·실용성 등 꼽아

삼성물산 패션은 24일, 2021년 봄·여름 시즌의 남성복 트렌드로 '지속가능성', '데님', '자연의 색', '실용성' 등을 꼽았다.

우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하기 위해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갤럭시는 소비자들이 좋은 소재의 상품을 오랫동안 의미있게 착용할 수 있게 한 '유틸리티 사르테크' 라인을 선보였다. 품격있는 비즈니스 라이프에 중점을 둔 '퍼스트 클래스 슈트'와 염색 과정이 묻어나는 자연스러운 외관과 적은 구김이 특징인 '텔라베 리넨 셔츠'를 내놨다. 나일론 셔츠 등의 소재를 사용해 빈번한 스티미나 세탁 등의 비환경적 요소를 최소화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52시간 근무로 오프 라이프가 중요해지면서 편안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데님'이 재조명받고 있다. 데님은 어느 아이템과도 어울리고 팬츠 형태 별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갤럭시라이프스타일은 가먼트 다임기법을 이용한 컬러 치노 팬츠를 새롭게 출시했다.

/원은미 기자

완제품 옷을 염색해 자연스러운 컬러감을 표현하는 고난도 공법인 가먼트 다임이 적용된 치노 팬츠는 그레이, 브릭, 베이지, 옐로우, 블루 등 여러 컬러로 출시됐다. 또 젊고 트렌디한 라인 '카디날'을 통해 '3無' 팬츠를 내놨다. 구김이 적어 편하고, 스트레치 기능으로 불편함을 줄였으며, 허리 사이즈 조절 기능이 있는 상품이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소비자들을 위로하며 희망적인 컬러를 담은 의류들도 조명받고 있다. 글로벌 색채 연구소 팬톤은 안정과 희망을 표현하는 '얼티미트 그레이'와 '일루미네이팅' 컬러를 올해의 컬러로 선정한 바 있다. 삼성패션연구소는 올 봄여름 트렌드 컬러로 자연의 색인 '아보카도 그린'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워진 업무 환경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효율·기능에 집중한 다목적 오피스웨어도 등장하고 있다. 다기능 재킷에는 관리가 쉬운 테크니컬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소재가 사용되며, 팬츠는 드로우스트링이 나지 않고 웨임을 조정하는 아이템들이 출시되고 있다.

동원F&B, 투썸서 비건 샌드위치 선보인다

'비온드미트 파니니' 2종

동원F&B가 투썸플레이스와 손잡고 식물성 대체육 샌드위치 '비온드미트 파니니' 2종을 선보인다.

'비온드미트 파니니' 2종은 동원F&B가 2019년부터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독점 판매하고 있는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비온드미트사의 비온드미트 제품을 넣은 샌드위치다. 새송이 버섯과 표고 버섯을 넣어 풍미를 더한 '비온드미트 더블 머쉬룸 파니니'와 커리 소스를 넣은 '비온드미트 커리 파니니' 2종으로 구성됐다.

비온드미트는 지난 2009년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콩과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100%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업체다.

비온드미트의 식물성 대체육은 환경호르몬이나 항생제 등이 들어 있지 않아 비건 소비자들은 물론, 환경과 건강



을 생각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비온드미트 파니니' 2종(비온드미트 더블 머쉬룸 파니니, 비온드미트 커리 파니니)의 가격은 6800원이며, 100여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은미 기자

애경산업

말랑이 핸드워시 매출 96% ↑

애경산업의 바다케어 브랜드 샤워메이트가 선보인 '말랑이 버블버블 핸드워시'가 출시 후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애경산업은 24일 "말랑이 버블버블 핸드워시가 지난해 250만개 이상 판매되며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 손씻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이를 쉽게 도와주는 핸드워시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도 매출 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롯데제과 말랑카우의 '말랑이' 캐릭터를 패키지에 담아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에 귀여운 캐릭터가 주는 친근함으로 다가갔기 때문이다. 이색 협업을 통해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 MZ세대 등에게 손씻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줬다는 것도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원은미 기자

항바이러스 기능 강화 '방탄 투팩' 티셔츠

한세엠케이 TBJ-앤듀 티셔츠 상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높아진 위생 의식에 맞춰 한세엠케이가 안티바이러스 티셔츠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한세엠케이는 항바이러스 기능을 강화한 티셔츠 '방탄 투팩' 2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탄 투팩은 한세실업에서 만든 티셔츠 2종 세트로, 한세엠케이 자사 브랜드 TBJ와 앤듀의 티셔츠 상품으로 구성됐다.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대한 유해 세균 항균력이 99.9%에 달하는 에이지온 원단을 사용해 위생 관리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위스 섬유 가공업체 하이큐의 '스마트 템프' 기술을 적용해 체온에 따른 온도와 습도 관리까지 가능하다. 인체의 열에 의해 촉발되는 온도 및 습도를 관리하는 기능이 뛰어나 여러 번의 옷을 겹쳐 입거나 티셔츠 단별로 착용할 경우 모두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다.

한세엠케이는 이번 방탄 투팩 출시를 기점으로 유통 채널 다각화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탄 투팩 상품은 쿠팡 로켓배송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하며 소비자들 더욱 간편하게 쇼핑하도록 고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건보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사랑의 헌혈'

서울강원본부 직원 자발적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24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 나눔, 헌혈'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했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헌혈 주간과는 별도로 30여 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헌혈 참여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체 참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했다.

홍무표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장은 "작년 11월에도 50여명이 헌혈에 참여 하였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직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지역본부 건물 앞 헌혈버스에서 헌혈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보유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헌혈의 날을 기획하

게 됐다"며 "혈액 수급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기지 수첩

한 용 수
(정책사회부)

전국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차츰 줄여나간다는 취지의 법률이 지난해 4월 시행됐고 그에 따라 전국 공장 굴뚝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24시간 감시하는 장비가 내년 연말까지 2200여개가 설치된다. 장비값과 설치비만 1대에 1억원 수준으로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돈만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전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지 않, 해당 장비 관리 지침은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각 사업장이 마음만 먹으면 장비의 상수값을 수정해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 정에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이다.

이후 환경부는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농도 조작이 적발되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장비가 고장나면 가장 반년 동안 수리기간을 주는 것도 의문이다.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해 이 기간 허용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게 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요기업들이 이미 설치한 장비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최소 수리기간이 4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간을 줄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공색한 변명을 내놨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가 국민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업계는 정해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 정에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이다.

이후 환경부는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농도 조작이 적발되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KCC, 4년째 취약계층 거주환경개선 이어간다

서초구와 '반딧불 하우스' 업무협약

KCC가 서울 서초구에서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KCC는 서초구 및 관내 복지기관들과 함께 '2021년 반딧불 하우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 취약 계층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공헌 활동을 4년 연속 이어가기로 했다.

'반딧불 하우스'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딧불이가 내는 빛처럼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을 환하고 밝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KCC는 이번 사업에 1억원 상당의 친환경 페인트, 건자재 등을 지원한다. 노후됐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각 대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1대 1 맞춤형으로 시공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신청 가구를 모집해 신청 사유, 지원 시급성,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 주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공간복지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취약 청소년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2월 25일 (음 1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바위보다 무거운 인생의 짐. **48년생** 하나의 걱정이 해소되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다. **60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기쁜 하루. **72년생** 구정 물에 발을 담그면 어찌될까. **84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 37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49년생** 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1년생**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 **7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5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 38년생** 문제가 있어야 정답도 있다. **50년생** 변화를 두려워 말고 과감히 도전. **62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74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86년생**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다가가라.
- 39년생** 향기 없는 꽃을 부러워 마라. **51년생** 벌을 두려워하고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63년생** 자식이 보물이나 보물이다. **75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니 것이니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87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
- 40년생** 최선의 지도력은 술선수범이다. **52년생**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4년생** 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다. **76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88년생** 쥐띠 상사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 41년생**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다. **53년생**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게 좋다. **65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77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되는 법. **89년생** 조상공덕이나 다른 공덕이 힘을 발휘한다.
- 42년생**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지 마라. **54년생** 기본 소식이 오니 고민이 일시에 해결. **66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어야 한다. **7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하다. **90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해두자.
- 43년생**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55년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이 한순간. **67년생** 심신이 고단하니 재물은 들어온다. **79년생** 금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91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가 확인.
- 44년생** 나이 들면 입은 무거워져야 한다. **56년생** 만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68년생** 지금 행복이 가장 소중. **80년생** 상대의 실수가 기회일 수가 있으니 열심히 해내라. **92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노력하자.
- 45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노력에 대한 보답. **5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방법. **69년생** 격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단게 한다. **81년생** 기대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93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프다.
- 46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가 약간의 손해 발생. **58년생** 앞던 이가 빠진 듯 시원하다. **70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곧 봄이 온다. **82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이기적으로 된다. **94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역할을 다 한 것.
- 47년생** 헛된 꿈이 큰 망상을 다져온다. **59년생**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라. **71년생**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준다. **83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이니 기다려라. **95년생** 마음을 깔끔하게 원하는 바를 기도.



김상희의四季

희망의 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운세는 파죽지세처럼 뻗어나가는 기운일지도 모른다.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회사 규모도 커지고 탄탄해지는 운세.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운세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는 사실상 힘들다.

변창하는 시기가 있다면 침체하는 때도 있고 그런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에 상담을 왔던 대표께서 그랬다. 배 관련 사업이 잘될 때는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 번 큰돈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잘되는 것과 비슷하게 순식간에 망한 경험도 있다.

사업이 부침이 너무 심해 자기도 이제 지친 상태였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흥하고 크게 망하는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가 물었다. 답은 사주에 있었다. 그는 편재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편재는 사업의 재물이다.

재물을 얻을 때 순식간에 많이 얻는다. 꾸준한 노력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횡재를 동반한다. 재물을 모으는데 재주가 있지만 횡재가 이어지니 지나친 행보를 벌이는 게 문제이다. 그는 고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주로 벌였고 성공하면 큰돈을 벌었다.

고수익이 나온다는 건 투기성이 강하다는 말과 같다. 잘못되면 크게 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큰 재물을 얻거나 크게 망하는 양극단을 번갈아 거치며 지나온 것이다. 희망이 심한 지금의 상황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사업 방식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다.

모아두기도 하며 지나친 고수익을 쫓아다니는 사업 스타일을 바꾸는 게 방법이다.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는 한 번쯤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너무 횡재를 바라는 건 아닌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본 다음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자기를 다독이는 습관을 들이면 사업도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박한형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소수점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퍼즐 **사투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5	9	7		3	8	4	
6	8						9	3
1								6
8			2	3	6			7
			4		9			
9			8	7	1			4
7								2
4	6						3	5
1	3	6		4	7	8		

		2					8	
	1	3	4			8	7	9
8	7							1
	6		9		4			3
				6				
	9		5		2			6
2	4						8	6
	3	6	8			9	5	2
		1						9

http://argo9.com

정답

6	8	2	7	9	1	5		
9	1	3	4	8	6	7	9	2
2	9	7	5	1	8	6	4	
7	5	1	2	8	9	7	6	
8	7	6	9	5	7	1	2	8
2	1	4	9	6	2	5	7	8
3	4	5	8	7	1	2	9	6
5	6	9	2	7	1	8	9	4
1	7	8	1	9	2	6	5	7

고난이도의 월드컵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정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6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743호	

K물류 위상 높인 'CJ대한통운', 우즈베크 초대형 사업 수주

화물 총 무게만 약 8000톤
24시간 기상관측 체계 구축
유압식 모듈 트레일러 투입

CJ대한통운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초대형 프로젝트 물류를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K-물류'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프로젝트 물류'란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설치, 생산시설물 건설 등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중량물을 현장 일정에 맞춰 운송, 공급하는 물류를 말한다.

CJ대한통운은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이 우즈베키스탄 수르칸다리아 남부지역에 건설하는 천연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 물류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CJ ICM은 중국을 비롯해 벨기에,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에서 개별 기자재를 선적해 해상운송, 환적, 통



CJ대한통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초대형 프로젝트 물류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이 앞서 진행한 프로젝트 물류 장면.

관, 하역, 내륙운송 등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송목록에는 무게 500톤(t) 이상의 초중량물이 포함돼 있으며 모든 운송화물의 총 무게는 약 8000t에 이른다. 이는 성인 한 명의 몸무게를 70kg으로 가정할 경우 약 11만 명과 맞먹는 무게다.

각 국가에서 우즈베크 건설지역까지 해상과 내륙을 통해 운송되는 1회 이동거리는 2만 여km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중량물 운송 전문인력과 화물선, 운송차량, 유압식 모듈 트레일러 등 대규모의 인력과 물류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초중량물 운송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흔들림이 커 높은 물류설계기술과 경험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프로젝트다. CJ ICM은 해상운송시태풍, 폭우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24시간 기상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대안경로 운행, 대체 장비 투입 등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물류를 수행한다.

내륙운송은 더욱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CJ ICM은 500t 이상의 무게를 견디며 운송하기 위해 유압식 모듈 트레일러(Hydraulic Modular Trailer)를 투입한다. 화물의 하중 산출, 고박 위치 선정, 특수 받침목 제작 등 정교한 무게 분산 작업을 진행한다. 또 도로 포장상태와 곡선, 고도변화 등에 민감한 만큼 속도는 시속 20km 안팎으로 유지한다.

또 기자재의 무게, 높이, 폭 등을 고려해 운송 중 발생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빌 워크(Civil Work)' 작업도 병행한다.

대부분 설계하중이 50t 미만인 일반 다리를 통과하기 위해 사전에 교량을 철거하고 도로 위 전선, 신호등, 표지판 등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또 뛰어난 정부기관 대응능력과 각 국가별 법규, 정책, 종교,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우즈베크 천연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 물류를 기반으로 초중량물 운송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 ICM은 물류설계기술, 현지 인적·물적네트워크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동·중앙아시아의 중량물 운송 분야 1위 기업의 명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수준 높은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 시장에 'K-물류'의 위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매출 1000억·기업1000개사 육성 목표”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취임
“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한 시기
검증 거친 이노비즈 중심에 둬야”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 제조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이노비즈 기업이 제조 중소기업 정책의 실행 중심이자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신임 회장(사진)이 24일 취임을 하면서 밝힌 포부다.

임병훈 회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업종별·지역특화별 산업 기반 가치사슬 클러스터를 구축, 이노비즈기업 간 제조 빅데이터를 공유한 실시간 생산 협업체계 등을 통해 매출 1000억원 기업 1000개사 육성, 이노비즈 기업내 종사자 100만명 달성에 앞장서겠다”면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이끈 이노비즈 제도의 20년을 맞이해 새로운 20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임 회장은 조선대 정밀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에 텔스타호텔을 설립했다. 텔스타호텔은 현재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품 구축 및 운영, 자동화 장비, 정밀 측정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3년간 이노비즈협회를 이끌게 된 임 회장은 AI 전환, 상생 협업,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한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중심, 이노비즈’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 ▲이노비즈 상생 협업 추진 ▲이노비즈 성장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수출 패러다임 전환 선도기관이라는 ‘스마트(SMART) 5대 전략·10대 추진과제’도 함께 밝혔다.

임 회장은 “수요자 중심 시대에는 시장이 가까운 곳에 공장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장을 수출하는 글로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공장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이 이끌게 된 이노비즈협회는 회원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넘어 스마트 비즈니스를 통해 제조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기업 집중 육

성, 제조업의 제조서비스업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기업간 협업을 통한 공동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기업 간 상생 협업 촉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도 지원한다. 임 회장은 “기업들은 앞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ESG경영을 해야 한다”며 “이노비즈기업이 스케일업을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노비즈 제도 개편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재배치 지원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 ▲이노비즈 글로벌화 모델 확산 ▲기술 기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산업정책을 통해 대기업을 키웠다. 중소기업정책을 통해선 벤처와 이노비즈를 탄생시켰다. 이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중심엔 이노비즈(기술혁신)를 둬야 한다”며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위기에 강할 만큼 이노비즈 기업들은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쌍용양회, 쌍용C&E로 사명변경 ‘새출발’

종합환경기업 도약

쌍용양회가 쌍용C&E로 간판을 바꾸고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한다.

쌍용양회는 시멘트 제조업을 의미하는 ‘양회공업’을 떼고 환경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장 의지를 반영해 ‘쌍용C&E’로 사명을 변경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사명은 오는 3월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공식 선포한다.

쌍용C&E는 시멘트 대표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이어온 기업의 정체성인 ‘쌍용’은 유지하면서 ‘Cement & Environment’의 앞글자인 C&E를 더했다. 여기에는 미래 핵심가치인 환경분야로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종합환경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탄소중립’ 준비한 中企, 20% 미만 불과”

80% 대응 필요성 인식

친환경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대응 준비가 된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서도 10곳 중 8곳은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319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동향조사를 실시해 24일 내놓은 ‘KO SME 이슈 포커스’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1%는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쌍용양회 홍사승 회장은 “쌍용양회가 지난 60여년 동안 시멘트산업을 선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엔 기여해왔다”면서 “시멘트산업을 기반으로 순환자원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환경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양회는 최근 5년 간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 등에 투자해 오고 있다. 또 지난 연말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다수의 환경 관련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초에는 ESG경영을 선포하고 탈석탄 등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매출 1조 돌파 이어 신용등급 ↑

한신평, A+로 한 단계 ‘상향’
전체적 사업 프로파일 향상

SK매직이 지난해 매출 1조원을 거둔 데 이어 신용등급도 올랐다.

24일 SK매직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SK매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0(공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신평은 이번 등급전망변경에서 ▲렌탈 계정기반 확대를 통한 사업안정성 강화 ▲렌탈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세 지속 ▲현금창출력에 기반한 우수한 재무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신평은 수익성과 커버리지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렌탈 시장의 성장성, 동사 외형 및 렌탈 계정의 우수

한 성장세, 시장내 2위권의 안정적인 시장지위 구축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 프로파일이 향상 된 점을 신용등급 조정 사유로 밝혔다.

SK매직 관계자는 “최근 신용등급 상향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사업인 렌탈사업의 성장세와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준비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80.6%의 기업이 ‘공감’을 표했다.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인식하면서도 실제 준비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화공, 금속의 경우 ‘준비가 되어(있거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7%, 9.5%에 그쳐 전체 평균 대비 탄소중립 준비 수준이 저조한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으로는 ‘저탄소·친환경 기술·제품 사업화’(4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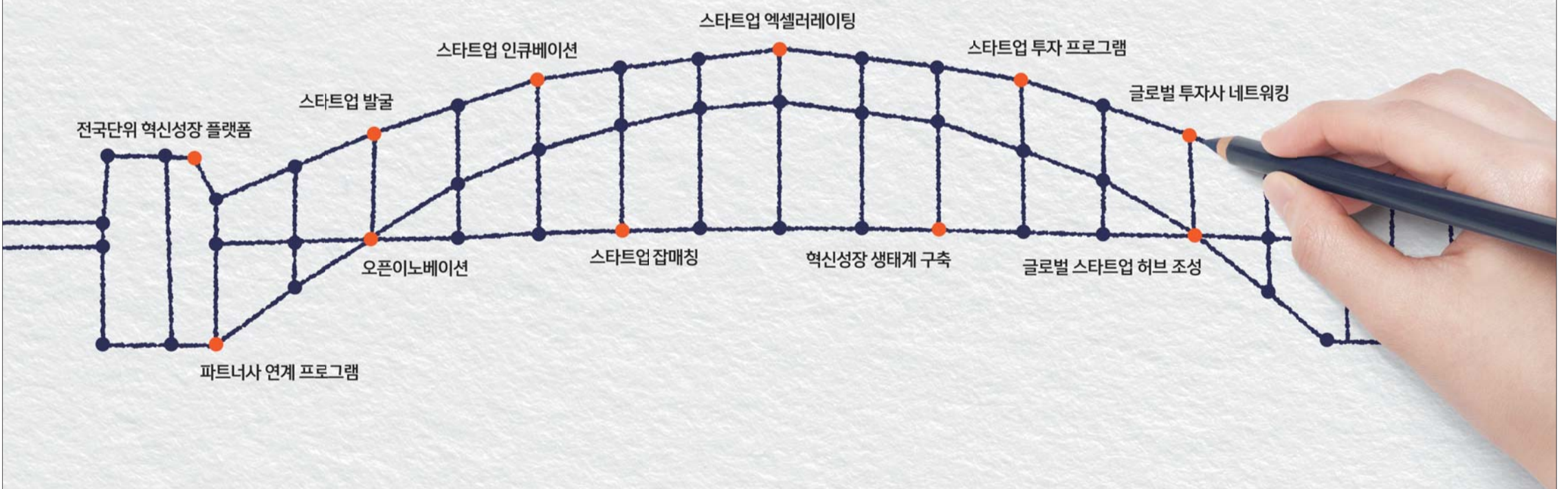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다리, 신한 스퀘어브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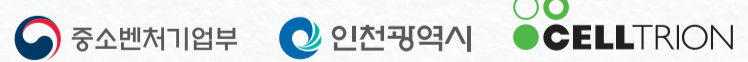


이 다리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 성장의 내일로 나아가도록
신한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Hope Together.
Grow Together.



대한민국의 기회를 발견하는
기발한 프로덕션의 첫번째 이야기, 스퀘어브릿지



신한 스퀘어브릿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 셀트리온그룹과 함께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 1만3000세대 규모 공공주택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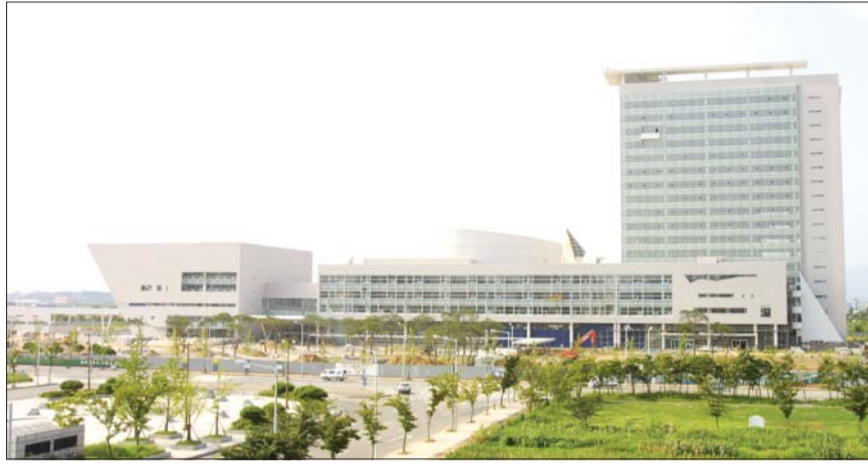
산정·장수동 일원 최종 입지선정
송정역 인접 광역교통 여건 양호
광주형 일자리 배후 주거단지 마련

광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1만3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4 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 '2·4 공공주택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 발표 이후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부에 신규 택지공급 확대를 제안토록 해 광명시흥, 부산 대저와 함께 산정지구가 1차 입지로 선정되는데 산과 역할을 했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산정 공공주택지구는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51만평) 부지에 광주형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시설, 자족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지구는 호남의 관문인 광주 송정역과 인접해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하남진곡산단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도심뿐만 아니라 무안과 나주 등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하남

산단, 진곡산단 등이 위치하고 하남지구, 수완지구 등과도 인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정부와 LH, 광주시는 산정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한 다양한 개발방향을 논의 중이다.

우선,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

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물류·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중산층 이하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질 좋은 광주형 평생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권 내 세대가 서로 어울리는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공원, 학교, 체육과 크 등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소통형 주거단지를 만들고 특히 38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개발구상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본격 논의돼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정 공공택지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 착수에 이어 2025년 착공해 2029년에 최종 완공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이날부터 토지거래 행위 가 전면 제한되고 금명간 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35%는 임대, 나머지는 분양공급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목포시 3·1절 근대역사관 무료개방

목포시가 오는 3월 1일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목포근대역사1·2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목포근대역사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이지만 3·1절인 오는 1일은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특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목포근대역사관 2관 2층에서 3·1운동을 기념하는 '영웅, 그날의 기억을 건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다. 특별전은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목포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관련 영상과 유물을 전시해 목포의 근대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일괄지급

여수시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4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권오봉 시장이 전남도에 지속 건의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이행한 결과 전년도보다 한 달 반 일찍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일괄 지급하게 됐다.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9969명이며 지급액은 60여억 원으로, 전액 지역 화폐인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경영체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패불도 복장유물

/상주시

상주시 '영산회 패불도' 보물 지정

상주시는 '상주 남장사 영산회 패불도 및 복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2116호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남장사 영산회 패불도는 높이가 11m 정도의 대형불화로, 1776년(정조1)에 조선 후기 대표 수화승인 유성(有誠)을 비롯해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23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했으며 18세기 후반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패불의 복장유물은 총 3점으로 복장낭과 동경, 복장낭 보관함 각 1점이다. 현존하는 복장낭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보관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상주(경북)=김홍식 기자 gi2136@

전국원전동맹, 정세균 총리 면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행정부가 주도적 역할 해야”

원전안전 문제 관련 정부 대책 건의
“안전교부세, 지역에 최소한의 보상”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원전동맹 5개 지자체가 참석한 이번 면담에서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 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상익 함평군수와 정세균 총리와 5개 지자체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의 원전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

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기조와도 일치할 뿐 아니라 예산

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한빛원전 격납건물 공극(구멍),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등 원전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인근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있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강성태 기자 ksd1008@

광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1.8억 투입

지역산업수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

광양시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돼 총 21억 83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개 사업과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다.

'광양시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플랜트 고숙련 인재 양성과정과정과 산업현장 안전·위험물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상·하반기에 운영되며 총 68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전남형 주력산업 고용안정 프로젝트 기초산업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계설비, 산업 운송장비, 전기설비공사, 2차 전기 총 4개 과정을 통해 130명을 양성하며 2월 23일 상반기 교육을 시작한다.

작년 15명의 대기업 취업성과를 거둔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필기·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오는 3월 3일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퇴직자와 미취업 중장년을 대상으로 현재 지게차 과정 20명을 모집 중이며 오는 3월 17일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의 80%를 지원한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부산시, 드론활용 낙동강하구 생태 파악

지형·식물 군락 변화상 조사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낙동강하구에 형성된 사주섬, 갯벌 등의 지형과 식물 군락 변화상을 조사하기 위한 '드론 활용 모니터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생태계 안정성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지난해 부산시 컨소시엄이 수행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가운데 '낙동강하구 드론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드론 항공사진을 분석, 접근이 어렵고 광범위한 낙동강하구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조사는 철새서식처(사주섬·갯벌)와 먹이식물(새섬매자기·잘피류 등) 군락의 유동적인 변화를 지속해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자인 ▲을숙도 하부 ▲명지주거단지 앞 ▲대마등 ▲맹금머리등 ▲백합등 ▲도요 등뿐만 아니라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대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1400만원을 포함해 20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철새 먹이식물인 새섬매자기의 분포 가능성과 199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한 잘피(애기거머리말)가 군락으로 분포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라이프]
돌아온 골프의 계절
더 젊고 세련되게
라운딩을
너



Life

[중소·중견]
K물류 위상 높인
CJ대한통운
우즈벡 초대형 물류 수주
L4



서울시, 백신 접종 대장정... 10월 말까지 70% 접종 목표

대상·방법·모니터 '333대책' 준비 26일부터 요양시설 9.6만명 접종 7월까지 전 자치구에 접종센터 설치 이상반응자 등 접종 현황 투명 공개

서울시가 26일부터 '천만 시민 백신 접종 대장정'에 들어간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이 오기 전인 올해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70%(약 606만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전 시민 백신접종을 위해 '3단계(접종 대상) - 3개 트랙(접종 방법) - 3중 관리(모니터링·조치)'를 골자로 하는 일명 '333대책'을 준비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백신 접종은 우선순위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달 말부터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1단계 접종 대상자는 총 9만6000명으로, 전체의 1.6%다. 시는 2월 26일부터 다음달까지 서울시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를 포함 2만2615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이후 고위험 의료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만시민 백신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 종사자, 코로나 대응 요원들을 상대로 한 접종이 실시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1호 접종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2단계(4~6월)에선 전체 대상자의 30.5%인 185만명에 대한 접종에 나선다. 65세 이상 어르신 154만5000여명,

노인 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1만여명과 종사자 5700여명, 1단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26만여명,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2만8000명이 그 대상이다.

3단계(7~10월)에선 전체의 67.8%인 411만명을 타깃으로 한 접종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50~64세 성인,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사회기반 종사자,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그외 시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 대

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백신을 맞은 시민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접종 방법은 ▲예방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방문접종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예방접종센터에선 초저온 관리가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중앙접종센터 1곳이 마련되고 지역접종센터 29곳은 구민회관, 체육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차려진다. 시는 자치구별로 지역접종센터를 1곳씩 설치하되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강남, 강서, 노원, 송파 4개 자치구에는 한 곳을 더 추가로 만들어 병목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시 1호 지역접종센터는 성동구청 내 다목적 강당에 생기기 3월 중순부터 가동된다. 시는 7월까지 모든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시민들이 집 근처 병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6월까지 위탁의료기관 3500곳을 확보하는 한편 이동이 어려운 노인요양시설 및 중증장애인시설 입원·종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예진 - 모니터링 - 응급조치'로 구성된 3중 관리 대책을 준비했다.

시는 예진 단계에서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한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사전에 선별한다. 백신을 접종한 뒤에는 현장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한다. 시는 백신을 맞은 시민이 귀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신고를 하면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병원에 연계하기로 했다.

백신접종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일일 접종 현황과 접종자 수, 접종시설 현황, 이상반응자 현황 및 조치 결과 등의 제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시는 약속했다.

서울시에 타 지역 거주자들의 왕래가 잦아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에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현재 예방접종을 통한 1차적인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전파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집단면역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청년 5000명에 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 비중 ↑ 월 20만원 최장 10개월간 보조

서울시는 올해 청년 5000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발을 뒀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

하, 월세 60만원 아래인 건물에 사는 무주택자를 지원한다.

시는 금년에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조건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아래) 선정 인원은 2500명으로 전년 대비 1.5배 늘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시는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 적절 여부 검토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자 5000명을 선정한다. 월세 지원은 5월부터 격월로 2개월 치를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된 '신청모집 공고문'(2월 24일자)을 참고하거나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 청년월세 지원 상담센터,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숙박형 고시원 78%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서울시, 585곳에 설치 공사비 지원

서울시는 관내 숙박형 고시원 750곳 중 585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고시원 영업주에게 간이스프링클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18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고시원 화재 이후 2019년 8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전체 숙박형 고시원의 78%에 간이스프링클러를 달았다.

간이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에서 소화용수가 자동 방수되는 설비다.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수조, 펌프 시설이 필요한 일반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공사비도 저렴하다.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5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2건 중 1건 합의 이끌어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약 200건이며, 이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유도한 사례가 절반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는 지난해 총 19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전체의 47.9%인 92건에서 조정이 성립됐고, 각하는 85건(44.3%), 조정불성립은 15건(7.8%)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접수된 안건은 2019년보다 6.6%, 2018년보다 24.7%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스타트업 지원

증권형·후원형 총 50개사 선발

경기도의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유망 창업팀 모집에 나서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방식을 도입, 효과적인 시장진입과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됐다.

스타트업이 온라인 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대중 소액투자자들의 선택과 의견 환류로 시장성을 평가받은 후 투자유치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시작 첫해인 올해는 투자자들에

게 펀딩의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증권형(투자형)' 30개사, 제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형(리워드형)' 20개사 등 총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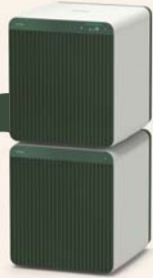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중개수수료, 동영상 및 펀딩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후원형'은 최대 500만원, '증권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펀딩 성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투자교육과 1:1 컨설팅 및 멘토링 등도 함께 지원된다.

특히 '증권형' 30개사 중 우수한 펀딩 실적을 기록한 15개사를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해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안성기 기자 ask9990@

나 같은 공기청정기 처음이죠?

UV 플러스 안심 살균으로
위생개념 철저

안전한 Air



5way 흡입 3way 토출로
빠짐없이 구석구석

강력한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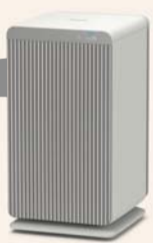
무풍 청정으로
직바람,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한 Air



크기, 컬러, 패턴
그리고 청정 성능까지

맞추는 Air



우리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Air
BESPOKE 큐브™ Air

SAMSUNG



가전을 나답게.

* 살균 기능은 모델마다 상이함 (UV 플러스 안심 살균은 딥그린, 그레이 한정)